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요 이슈 및 통합과정 점검



Global
Market
Report

목 차

요 약 / 1

I. EAEU 대내·외 경제관계

- 3 | 1. 역내 경제관계와 시사점
- 16 | 2. 역외 교역 및 투자동향

II. EAEU 주요 대내이슈

- 26 | 1.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과 의료산업 기반확충
- 35 | 2.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육성

III. EAEU 주요 대외이슈

- 47 | 1. 통합의 외연확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 62 | 2. 유라시아 연계 교역 및 운송루트

IV.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 EAEU 대내·외 경제관계

- EAEU 역내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역상품 구조도 원자재부터 제조업 제품까지 다변화
 - * 2016년 역내 교역규모는 456억 달러수준이었으나 2019년까지 61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
 - ** 러시아의 비중이 절대적이거나 교역제품은 원자재, 기계, 식료품, 화학제품 등으로 다변화 되어있어 상호보완적 구조 성립
- 역내 투자는 주로 러시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對러시아 투자 확대
-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교역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중국이 교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 * 주요 수출국은 중국(16.4%), 네덜란드(7.9%), 영국(7.0%) 순이며,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연료(51.4%), 철강(4.6%), 곡물(3.1%)
 - ** 그러나 제조업발전이 더디게 나타나 기계류, 전자기기 등의 수입이 큼.
- 역외 투자는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유입도 두 국가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주요 대내 이슈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의료산업 기반 개선과 각 국의 관련 산업 발전전략 추진
 - *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EAEU는 경제협력체 차원에서 의료장비, 소독제 등에 대해 공동대응 하였으며 국가별 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고령화에 따른 제약 및 의료장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기반 미약
- EAEU 차원에서의 공동의 디지털 경제 구축과 신산업발전은 대내적 핵심과제 중 하나

- * EAEU 공동의 디지털공간과 표준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각 국가별로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 병행
- ** EAEU 내에서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가별로 실제적인 적용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각 국간 디지털격차로 인한 애로발생 문제 대두

□ 주요 대외 이슈

- EAEU는 대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읍저버 가입, 이란과의 FTA 체결 등으로 외연확대 노력 지속
 - * 2020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은 읍저버로 가입하였으며 향후 정회원 가입에 기대하는 주요 이점은 △수출확대, △노동이주 및 외화송금유입 안정화, △EAEU 중심의 디지털·신산업육성 촉진 등
 - ** 반면, △비관세장벽, △두뇌유출, △디지털산업의 러시아의존도 심화 등은 우즈베키스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 *** 이란과의 FTA는 2019년 10월 발효되어 시행중이며 경제제재 하인 이란의 대외적 필요성과 결부되어 교역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EAEU를 관통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다양한 물류운송루트가 개발 중이며 향후 유라시아대륙의 물류체계에 영향
 - * ‘중국-키르기스-우즈벡’, ‘중국-카자흐-우즈벡-투르크-이란’, ‘중국-키르기스-타직-아프간-이란’ 등의 다양한 노선 개발 중
 - ** 각 루트에 있어 EAEU 각 회원국의 참여 정도에 따라 개별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

□ 협력 시사점

- EAEU 대내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개별적인 전략을 차별화
 - * 단기간 내에 공동규범 제정이 어려운 의료서비스나 디지털 및 신산업발전 등의 분야에서는 각 국가별 협력전략 마련
 - ** 디지털 기반마련, 공동체 구축에서는 EAEU차원의 협력 필요
- 물류운송체계의 다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운송루트 시험 및 EAEU와의 실용적 협력전략 모색
 - * EAEU와의 한시적 FTA 체결, 읍저버 가입 등

I EAEU 대내·외 경제관계

1 역내 경제관계와 시사점

□ EAEU 역내 교역현황

- 2015년 EAEU 출범이후 교역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
 - 2015년 역내 교역은 약 456억 달러였으며 2016년 429억 달러로 소폭 감소한 뒤 상승세를 보였음.

〈 표 1 〉 EAEU 내 국가별 교역금액과 비중 (수출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EAEU 전체	45,615.7	42,960.3	54,711.6	60,261.5	61,634.0	55,053.9
아르메니아	256.2	393.9	571.0	688.5	769.2	709.9
비중(%)	0.6	0.9	1.0	1.1	1.3	1.3
벨라루스	11,007.8	11,384.8	13,651.0	13,932.2	14,569.7	14,009.0
비중(%)	24.1	26.6	25.0	23.1	23.6	25.4
카자흐스탄	5,120.3	3,930.1	5,262.6	6,046.8	6,406.2	5,671.9
비중(%)	11.2	9.1	9.6	10.0	10.4	10.3
키르기스스탄	410.2	447.2	541.5	640.6	641.7	554.5
비중(%)	0.9	1.0	1.0	1.1	1.0	1.0
러시아	28,821.2	26,804.3	34,685.5	38,953.4	39,247.2	34,108.6
비중(%)	63.2	62.4	63.4	64.7	63.7	62.0

* 주: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 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заимна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2017년부터 교역금액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616억 달러를 상회
 - 당시 교역금액의 확대는 주요 교역품인 원유,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국제가격이 상승 및 각 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교역이 활발해진 것이 영향
 - 다만, 코로나 사태의 발생 영향으로 2020년은 전년대비 교역이 크게 줄어 약 550억 달러로 감소
- 역내 교역 비중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 국가와의 격차 큼.
- 역내 러시아의 교역 금액과 비중은 2015년 각각 약 288억 달러와 63.2%를 기록하였고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 금액기준으로는 2019년 약 392억 달러로 최대치를 보임.
 - * 교역비중은 2018년 64.7%가 가장 높은 수준
 - 2020년에는 러시아의 교역금액과 비중이 감소하였고, 비중의 경우 EAEU 설립이후 최저치인 62.0%를 기록
 - 러시아 다음으로 높은 교역비중을 보이는 국가는 벨라루스로 약 2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
 -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경제규모가 작아 교역비중은 2020년을 기준으로 각각 1.3%와 1.0%에 그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1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역내 수입에서는 2020년 기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가장 큰 수입시장 역할을 하며 국가별 편차는 크지 않음.

- 러시아는 전체 수입시장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이 30.7%와 27.2%로 그 뒤를 점유
- 러시아에 비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나, 수입시장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표 2 〉 EAEU 역내 수입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2019~2020년

구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2019년	2.8	35.9	24.7	3.4	33.2
2020년	3.1	30.7	27.2	3.5	35.4

* 자료: Евразий 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заимна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또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수출비중에 비해 역내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를 제외한 타 국가의 경우, EAEU 내에서 수출보다는 수입금액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
 - * 사실상 러시아가 EAEU 내에서 수입시장 역할을 하기 보다는 수출로 이익을 보는 상황
- EAEU 역내에서 가장 높은 교역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은 광물이며 기계 및 운송기관, 식료품 등이 그 다음 순서
- 2019년 광물의 교역금액은 약 157억 달러였으나 2020년은 약 11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비중도 축소

〈 표 3 〉 EAEU 역내 수출 상품구조: 2019~2020년

구분	2019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EAEU 전체	61,634.0	100	55,053.9	100
광물	15,796.5	25.6	11,866.9	21.6
기계, 운송기관	12,253.9	19.9	10,999.1	19.9
식료품, 농업제품	9,635.3	15.6	9,915.5	18.0
금속류	7,889.7	12.8	6,767.9	12.3
화학제품	7,430.9	12.1	7,195.9	13.1
섬유, 신발	2,328.9	3.8	2,210.6	4.0
목재류	1,673.2	2.7	1,624.9	2.9
기타	4,625.6	7.5	4,473.2	8.1

* 주: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заимна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광물에 이어 기계 및 운송기관의 교역이 약 20%에 달하면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료품과 금속류 등의 교역도 많은 편
- EAEU 주요 국가들의 광물·에너지 생산과 수출이 높은 편이나 내부적으로는 기계, 운송기관,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군의 교역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
-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의 교역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상품군에 따라 다른 국가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상존
 - 광물군의 경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약 77%이며 카자흐스탄이 19%를 차지하여 에너지 수출국으로

서의 특성이 잘 드러남.

- * 2019년의 러시아 비중은 81.6%였으나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2020년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고, 카자흐스탄은 15.8%에서 구리 등 광물 가격의 상승으로 비중 증가
- 그러나 벨라루스는 기계 등의 제조업과 공업이 발전한 국가로 기계, 장비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36.1%에 달해 높은 수준을 보임.

〈 벨라루스의 제조업 〉

- 벨라루스는 EAEU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와 함께 기본적인 제조업이 발전된 국가
 - 다만 인구가 약 1천만 명에 불과하여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기 보다는 몇 가지 산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
 - 특히, 자동차 등 운송기기, 기계제작,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이 소수의 산업군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정책을 펴고 있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EAEU국가들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나 벨라루스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으며 EAEU의 대외 FTA에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기계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상존
 - 기계분야에서 농기계, 트랙터, 광산용 덤프트럭 등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광산용 덤프트럭 생산기업으로 ‘벨라즈(Belaz)’라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
 -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으로 ‘나프탄(Naftan)’이 있는데 이 기업은 1958년 소비에트 시기에 처음 공장을 설립한 이래,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석유화학분야는 구 소련시대부터 이어져 온 산업적 기반이 중심이 되었으며 현재는 벨라루스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

○ EAEU의 통합 과정에서 역내 교역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교역구조도 비교적 보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2019년까지 교역 금액은 증가해왔으나 코로나19의 후유증에서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 있음.

- 역내 수출에서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수입에서는 벨라루스 등 타 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의 수혜는 러시아가 누리는 형국

* 일반적으로 경제연합체에서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수입시장이 큰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냄.

- 이러한 특징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교역관계가 매우 밀접한 데에 일부 기인하는데 벨라루스의 EAEU 내 수출과 수입금액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각각 93.9%와 99.2%에 달함.

* 벨라루스의 산업구조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해 이를 가공한 뒤 러시아에 수출하는 등 산업밸류체인 상 러시아와 깊이 연계

○ 2021년 들어 EAEU 내에서의 교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교역은 전년 동기대비 32.9% 증가한 268억 달러에 이룸.

- 교역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러시아 63.0%, 벨라루스 37.0%

루스 23.8%, 카자흐스탄 10.7% 등으로 이전과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림 1 > 2021년 5월까지 EAEU 교역현황



*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특히, 철강 및 관련제품(51.6%), 목재 및 펄프(34.8%), 섬유 및 신발(22.7%)등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초반 폭등한 철광석 가격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EAEU는 회원국 간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1년 7월, EAEU의 상위의결기구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uncil)’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알렉세이 오베르츠크(Алексей Оверчук)’ 부총리는 “회원국 내의 교역장벽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향후 역내 교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¹⁾

1) “Алексей Оверчук выступил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в рамках

- EAEU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EAEU 표준 인증안이 확정되면 역내 교역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EAEU 역내 투자현황

- 아르메니아에 대한 EAEU의 직접투자는 주로 러시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아르메니아에 대한 FDI는 2019년까지 2억 5,0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은 1억 달러대로 급감

〈 표 4 〉 對아르메니아 FDI와 EAEU: 2016~2020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FDI	333.7	250.9	254.1	254.5	117.3
EAEU	-90.9	-0.9	161.6	16.7	-92.3
벨라루스	0.0	0.0	0.0	0.0	0.0
카자흐스탄	-1.6	0.0	0.0	0.0	0.0
키르기스스탄	0.0	0.0	0.0	0.0	0.0
러시아	-89.4	-0.9	161.6	16.7	-92.3

* 주: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 러시아는 2018년 1억 6,16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이후에는 투자액 감소

x правительство часа,” 23, Июня, 2011, (<http://government.ru/news/42586/>,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 벨라루스에 대한 EAEU의 직접투자 비중은 30~40%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러시아로부터의 투자가 차지
- 벨라루스에 대한 연도별 FDI는 아르메니아보다 월등히 높은 12~1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러시아는 매년 4~5억 달러 수준의 투자수준을 지속

〈 표 5 〉 對벨라루스 FDI와 EAEU: 2016~2020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FDI	1,246.9	1,276.3	1,426.5	1,273.3	1,391.6
EAEU	543.8	462.7	570.9	459.1	474.1
아르메니아	0.4	3.8	2.4	2.4	2.7
카자흐스탄	0.2	3.2	2.4	4.2	4.1
키르기스스탄	0.0	0.0	-0.4	0.0	0.3
러시아	543.2	455.7	566.5	452.5	467.0

* 주: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 러시아 이외에 EAEU국가들도 벨라루스에 대한 직접투자가 있으나 금액으로는 미미
- 러시아의 對벨라루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벨라루스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또한 2016년 ‘러시아-벨라루스 벤처투자펀드(Russian-Belarusian Venture Investment Fund)’를 조성하여 양국의 혁신적인 기업에 공동으

로 투자하는 등 협력 지속

○ 카자흐스탄에 대한 EAEU의 직접투자 규모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2020년은 3.6% 수준에 그침.

- 카자흐스탄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은 2019년 약 33억 2,000만 달러에서 2020년 72억 6,400만 달러로 확대

〈 표 6 〉 對카자흐스탄 FDI와 EAEU: 2016~2020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FDI	17,221.0	4,712.6	83.4	3,320.6	7,264.6
EAEU	292.3	500.6	604.0	472.5	261.6
아르메니아	0.2	-0.6	0.1	0.0	1.0
벨라루스	7.1	0.4	-2.4	31.5	-18.5
키르기스스탄	-1.3	-2.8	1.6	2.1	-3.0
러시아	286.3	503.5	604.6	438.9	282.1

* 주: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 EAEU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의 절대 금액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2018년 이후 투자금액 감소

-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주로 원유·가스나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채굴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부 제조업이나 교통·통신 등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짐.

* 러시아의 ‘헤벨(Hevel)’, ‘까마즈(КамАЗ)’, ‘타트네프트(Татнефть)’ 등 약 100여개의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고 있음.²⁾

2) “Россия и Казахстан: приорите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0. Январь. 2021,

- 키르기스스탄은 FDI 유입금액이 크지 않으며 2016년 이후 EAEU 내부의 투자도 거의 없음.
 - 2016년 FDI는 6억 달러를 상회한 이래, 유입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 순 유입액은 마이너스 기록

〈 표 7 〉 對키르기스스탄 FDI와 EAEU: 2016~2020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FDI	615.9	-107.2	144.2	341.4	-509.5
EAEU	279.5	78.1	-13.9	0.3	-59.4
아르메니아	0.0	0.0	0.0	0.0	0.0
벨라루스	-17.6	0.0	0.5	0.4	-0.3
카자흐스탄	16.0	-2.2	-15.8	-8.1	11.2
러시아	281.1	80.3	1.4	8.0	-70.3

* 주: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 2016년 이래 러시아의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소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 러시아는 이미 2000년대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으며 EAEU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직접투자에 소극적인 모습
- 러시아는 EAEU 국가 중에서 FDI 유입이 가장 큰 국가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EAEU 국가들의 투자는 미미한 편

(https://www.ng.ru/cis/2021-01-10/5_8052_kazakhstan.html, 검색일: 2021년 8월 17일)

- 러시아에 대해 의미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나 2016년 이후 금액은 축소되고 있음.

〈 표 8 〉 對러시아 FDI와 EAEU: 2016~2020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FDI	32,538.9	28,557.5	8,784.8	31,974.8	8,662.6
EAEU	414.2	91.3	187.2	179.5	94.8
아르메니아	31.2	-141.8	-0.3	52.9	-0.9
벨라루스	47.6	47.9	52.8	14.7	11.5
카자흐스탄	350.5	205.0	158.6	130.0	107.4
키르기스스탄	-15.0	-19.7	-24.0	-18.1	-23.2

* 주: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 2016년 카자흐스탄의 투자금액은 3억 5,000만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20년은 1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
-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주로 광업 및 제조업, 농공산업단지, 식품생산 및 숙박업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³⁾
-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성장하면서 자국 내에만 투자하지 않고 점차 해외로 투자를 확대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기업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가 되었음.

○ EAEU 내에서 러시아의 경제규모가 월등히 큼에 따라, 러시

3) “Пандемия укрепит связи соседствующих государств,” 24, Декабрь, 2020, (<https://plus.rbc.ru/news/5fdc9c4d7a8aa9a3a0eb19a3>, 검색일: 2021년 8월 17일)

- 아 기업의 타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절대적인 비중 차지
-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구 소비에트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지역 내 최대 투자자 역할 수행
- 2010년대 이후 동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기존의 투자자산을 기반으로 주요 소국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
-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는 전력, 통신, 금융 등의 주요 자산에 대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국가의 러시아 의존도 확대 우려
 - * 러시아의 직접투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에 더해 해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전개
- 러시아의 투자는 대체로 원자재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태양광사업 등 기타 부문에 대한 투자도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대해 꾸준히 직접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교역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밀접한 관계의 토대 유지
-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대해 경기부침에 큰 영향 없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의 제 1 투자국으로 지위 유지
- 벨라루스가 자원기반 국가가 아닌 제조업이 발전한 국가이며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EAEU 역내의 구심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 양국은 1999년 국가통합조약에 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통합과정을 논의하는 등 특수 관계 유지

2 역외 교역 및 투자동향

□ EAEU 역외 교역현황

○ EAEU 전체 수출은 출범이래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대외변수 등으로 하락

– 러시아의 수출은 2018년 약 4,127억 달러에 달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2020년은 약 3,045억 달러로 급감

* 수출금액은 감소하였으나 EAEU 전체에서의 비중은 83~84% 수준 유지

〈 표 9 〉 EAEU 국가별 대외 수출금액과 비중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EAEU 전체	378,845.1	308,264.8	386,922.4	490,722.0	460,749.2	364,810.4
아르메니아	1,227.7	1,397.8	1,666.7	1,724.0	1,879.4	1,827.1
비중(%)	0.3	0.5	0.4	0.4	0.4	0.5
벨라루스	15,653.9	12,154.9	15,592.3	19,979.3	18,391.1	15,175.9
비중(%)	4.2	3.9	4.0	4.1	4.0	4.2
카자흐스탄	40,835.5	32,806.3	43,240.7	55,064.4	51,659.4	41,868.9
비중(%)	10.9	10.6	11.2	11.2	11.2	11.5
키르기스스탄	1,072.7	1,126.0	1,222.8	1,196.2	1,344.4	1,418.7
비중(%)	0.3	0.4	0.3	0.2	0.3	0.4
러시아	315,055.3	260,779.3	325,199.9	412,758.1	387,474.9	304,519.8
비중(%)	84.3	84.6	84.1	84.1	84.1	83.5

* 주: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 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카자흐스탄의 역외 수출도 2018년 피크 이후 2020년은 약

418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확대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소국의 경우, EAEU 역내 수출뿐만 아니라, 역외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아르메니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20년 수출은 49% 증가
 - * 키르기스스탄도 2020년까지 증가세가 계속되었으며 벨라루스는 2020년은 하락하였으나 이전까지 증가
 - **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수출금액 증가는 주요 수출품인 구리, 금 등 광물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

○ EAEU 전체 수입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러시아의 수입금액은 2019년 약 2,266억 달러에서 2020년 2,147억 달러로 감소

〈 표 10 〉 EAEU 국가별 대외 수입금액과 비중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EAEU 전체	205,537.4	201,107.9	247,271.3	263,114.4	275,026.7	259,817.0
아르메니아	2,218.9	2,163.4	2,782.9	3,534.8	3,830.6	2,861.4
비중(%)	1.1	1.1	1.1	1.4	1.4	1.1
벨라루스	13,088.6	12,234.7	14,525.9	15,689.1	17,280.5	16,128.4
비중(%)	6.4	6.1	5.9	6.0	6.3	6.2
카자흐스탄	19,356.2	15,513.2	17,081.5	19,561.1	24,411.9	24,220.6
비중(%)	9.4	7.7	6.9	7.4	8.9	9.3
키르기스스탄	2,088.8	2,374.5	2,631.1	3,130.7	2,888.3	1,833.5
비중(%)	1.0	1.2	1.1	1.2	1.0	0.7
러시아	168,784.9	168,822.1	210,249.9	221,198.7	226,615.4	214,773.2
비중(%)	82.1	83.9	85.0	84.0	82.4	82.7

* 주: 금액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 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타 국가들 또한 2019년까지의 경기개선세가 반영되어 수입금액이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하락
- EAEU는 대외적으로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유럽 및 중동 국가에 대한 비중도 큼.
-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20년 기준 약 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를 차지
- 뒤를 이어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에 대한 수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약 135억 달러로 3.7%를 기록

〈 표 11 〉 EAEU의 대외 수출금액과 비중: 2020년 기준

국가	금액(백만 달러)	비중(%)
중국	59,648.2	16.4
네덜란드	28,753.5	7.9
영국	25,645.2	7.0
독일	19,875.7	5.4
터키	18,269.1	5.0
이탈리아	16,848.1	4.6
한국	13,512.9	3.7

* 자료: Евразий 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EAEU에 대한 수출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의 순
- 중국은 EAEU 전체 수입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

로는 약 663억 달러에 달해 절대적인 점유를 보이고 있음.

-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도 EAEU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한국은 약 100억 달러를 수출하여 3.8%의 비중을 기록

〈 표 12 〉 EAEU의 대외 수입금액과 비중: 2020년 기준

국가	금액(백만 달러)	비중(%)
중국	66,328.3	25.5
독일	27,167.7	10.5
미국	14,898.6	5.7
이탈리아	12,271.8	4.7
한국	9,946.5	3.8
일본	9,330.5	3.6
프랑스	7,881.9	3.0

* 자료: Евразий 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EAEU의 주력 수출품은 광물성 연료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원유, 천연가스 등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 곡물 등이 각각 4.6%와 3.1%를 기록

〈 표 13 〉 EAEU의 품목별 수출금액과 비중: 2020년 기준

품목	금액(백만 달러)	비중(%)
광물성 연료	189,514.5	51.9
철강	16,912.5	4.6
곡물	11,156.5	3.1
비료	9,754.0	2.7
목재 및 목재제품	9,053.4	2.5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EAEU 국가들은 수출품목을 제조업으로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이 미약하여 고질적인 천연자원 수출의존 구조의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EAEU 제조업 발전 평가 >

- 잘 알려진 것처럼, EAEU는 천연자원개발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제조업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
 - 2018년 기준, 전세계 ‘제조업부가가치(MVA; Manufacturing Value Added)’ 금액은 13조 5,420억 달러였으며 여기에서 EA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6억 달러로 약 1.96%에 불과
 - EAEU 내에서 러시아의 MVA는 2,280억 달러로 85.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카자흐스탄이 204억 달러, 벨라루스가 148억 달러를 기록
 - * 카자흐스탄의 제조업부가가치가 벨라루스보다 높으나 이는 광물가공 분야가 발전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은 벨라루스가 발달되어 있음.
 -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각각 13억 달러와 9억 달러로 나타나⁴⁾ 제조업 발전은 매우 미미
-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도 위와 유사한데, ‘제조업생산구조’와 ‘생산요인’의 측면에서 EAEU는 대체로 중하위권 수준⁵⁾
 - 생산의 규모와 복잡성을 통해 측정하는 생산구조 측면에서 러시아는 100개국 중 35위를 차지했으며 점수로는 5.71을 기록
 - 또한, 생산기술, 인적자원, 제도, 무역 및 투자, 수요환경 등의 다양한 생산요인들을 평가하는 생산요인 측면에서는 순위와 점수가 각각 43위, 5.30을 기록

-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여건은 더 좋지 않은데, 카자흐스탄과 아르메니아도 양 부문 모두에서 60-7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생산요인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권 수준

○ EAEU가 수입하는 주요 상품은 주로 2020년 기준 기계·장비류 및 전자기기·부품 등이 차지하고 있음.

- 기계·장비의 수입금액은 2020년 기준 약 533억 달러를 상회하여 20.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기기·부품·영상기기류 등이 약 341억 달러로 13.1%를 점유

〈 표 14 〉 EAEU의 품목별 수입금액과 비중: 2020년 기준

품목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기계·장비	53,366.8	20.5
전자기기·부품·영상기기류	34,152.4	13.1
자동차 등 운송기기	19,808.7	7.6
의약품	13,071.8	5.0
플라스틱류	10,176.9	3.9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товарами,”

-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기기, 의약품, 플라스틱류의 수입금액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EAEU 내에서 발전이 미약하여 각 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군으로 분류

4) Angelina Kolomeytseva, “INDUSTRIAL GROWTH AND THE DISTRIBUTION PATTERN OF MANUFACTURING OUTPUT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UNIDO,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WP 3/2020*, p. 14.

5) The World Economic Forum, “Readiness for the Future of Production Report 2018,” p. 12.

□ EAEU 역외 투자현황

○ EAEU 각 국가에 대한 대외투자는 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큼.

-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2020년 기준 영국, 싱가포르, 중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의 투자는 약 91억 달러 수준

〈 표 15 〉 EAEU 각 국가에 대한 주요 투자국: 2017~2020년

EAEU	투자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르메니아	영국	25.2	50.1	21.5	57.8
	룩셈부르크	-38.2	8.8	24.8	30.1
	이탈리아	-1.4	0.3	27.0	18.6
벨라루스	키프러스	356.8/	180.4	124.0	266.4
	네덜란드	26.4	-59.5	166.8	99.4
	독일	26.4	58.6	16.5	73.3
카자흐스탄	버뮤다	429.7	2.2	2,709.2	2,843.8
	네덜란드	1,080.4	-2,336.2	-3,433.2	1,524.0
	미국	2,995.3	4,018.5	4,405.6	1,417.3
키르기스스탄	캐나다	-178.2	0.9	254.1	148.5
	네덜란드	17.7	32.8	57.7	54.0
	체코	0.0	0.1	0.1	9.2
러시아	영국	2,076.0	2,522.2	4,686.3	9,104.5
	싱가포르	2,703.1	1,586.5	530.2	8,570.2
	중국	573.5	135.3	2,687.3	2,303.4

* 주: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와 중국 등의 투자비중이 높으며 금액은 각각 약 85억 달러와 23억 달러에 이릅니다.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다음으로 투자유입이 많은 국가로 2020년 버뮤다, 네덜란드, 미국의 순으로 직접투자가 크게 나타났음.
 - * 버뮤다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을 통한 투자는 대개 러시아 등 CIS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로 간주
- 벨라루스의 대외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키프러스의 경우도 조세회피지역으로 볼 수 있음.
- EAEU에 대한 역외투자는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시기에도 대체로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가 다수
- EAEU로 유입되는 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은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 주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의 원유, 천연가스, 광물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
- EAEU에 대해 에너지 및 기타 제조업, 농업 분야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직접투자 시행
 - 영국의 에너지개발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럼(British Petroleum)’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러 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를 통한 투자가 지속될 것
 - * BP는 러시아 기업인 로스네프트의 지분 19.75%를 보유한 대주주로 양사는 에너지 개발에서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적인 관계 유지
 - ‘브리티시 아메리칸타바코(BAT, British American Tobacco)’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사라토프의 두 곳에 담배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의 증설 및 현대화에 지속적 투자

- 스웨덴의 ‘이케아(IKEA)’는 러시아 노브고로드 지역에 목재 가공 및 가구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품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CIS 및 기타지역으로 수출
 - 네덜란드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최대의 투자 국가 중 하나인데, 네덜란드의 에너지 기업인 ‘셸(Shell)’은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 최근 카자흐스탄의 농업분야에 투자한 한 네덜란드 기업은 ‘악토베(Aktobe)’지역에 온실을 건설하고 토마토 등의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 및 판매⁶⁾
 -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캐나다의 투자금액이 큰 것은 키르기스스탄 최대인 ‘쿰토르(Kumtor)’ 금 광산의 최대 주주가 캐나다 기업으로 광산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 EAEU 국가들의 역외투자(OFDI)는 주로 경제규모가 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역외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주로 에너지, 통신, 유통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근 CIS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이후 CIS 지역 이외에 대한 투자규모 및 투자분야가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수 년 간은 非CIS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6) “ГОЛЛАНДСКИЙ ИНВЕТОР В КАЗАХСТАНЕ: ИСТОРИЯ УСПЕХА,” 5, М арта 2020, (<https://atameken.kz/ru/news/35030-gollandskij-investor-v-kazahstane-istoriya-uspeha>, 검색일: 2021년 8월 24일)

〈 표 16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역외투자: 2017~2020년

국가	투자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카자흐스탄	CIS	6.6	21.0	51.7	92.0
	CIS 이외	463.0	-4,962.5	-2,482.6	1,025.4
러시아	CIS	-106.4	114.6	13.3	21.7
	CIS 이외	35,690.3	29,856.1	20,607.0	4,641.6

* 주: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최근 수 년 간 CIS 지역에 대한 투자 금액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액 자체는 미미한 편
 - 2020년 기준 CIS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는 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EAEU 국가들이 추진하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로부터의 투자유입이 동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
- 러시아는 EAEU내 최대 투자유입국이고 투자분야가 다양화 되어있으나 제조업 투자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카자흐스탄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음.
 -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기계, 운송기기, 의약품, 의료장비 등의 고부가가치 부문은 대외투자유입을 통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발전 가능
- * 역외의 주요 투자국으로 집계되는 키프러스, 버뮤다, 네덜란드 일부 등은 러시아 등 EAEU 국가의 세금회피 목적으로 활용되어 역외투자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II**EAEU 주요 대내 이슈****1****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과 의료산업 기반확충****□ EAEU의 코로나 대응과 의료산업현황**

- 2020년 초반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EAEU 국가들은 공동의 대응체제를 구성하고 전염병의 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 특히,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단기적으로 역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 2020년 3월 16일에는 개인의료장비, 진단시약, 소독제, 특정 유형의 의료장비 등에 대해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에도 무관세 수입을 공동으로 적용
 - 3월 24일에는 개인보호장구, 소독제, 의료제품 등의 EAEU 역외 수출을 금지하는 공동법안 채택
 - 3월 25일에는 역내 공인의료기관의 활동 및 대 국민 방역 및 위생업무 및 역학관계조사 등을 공동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
 - 4월 10일에는 역내에서의 항바이러스제 개발과 대량생산체제 구축, 원활한 운송시스템 마련 등에 합의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EAEU 국가들은 역내의 낙후된 의료보건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 추진

- * 이들은 사회주의 시스템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어 의료시장에서 공공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전반적인 현대화 필요
- 전 세계 93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의료시스템 평가에서 EAEU 국가들은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는 편
 - EAEU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카자흐스탄이 전체 국가 중 53위를 차지했으며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각각 59위와 63위를 기록
 - *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93위 안에 포함되지 않음

〈 표 17 〉 국별 의료시스템 평가: 2020년

순위	국가명	지수 (health care index)
1	대만	86.42
2	대한민국	82.26
3	프랑스	80.68
4	일본	80.23
5	덴마크	80.17
53	카자흐스탄	60.94
59	벨라루스	60.03
63	러시아	58.01

* 자료: Numbeo, Health Care Index by Country 2020 Mid-Year, https://www.numbeo.com/health-car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20-mid, (검색일: 2021년 9월 7일)

- 국제적인 기준에서 EAEU 국가들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이 국가들의 의료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장비 등이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
- 또한, 관련 시장인 의료기기 및 제약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성장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

-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의료법상 공공의료기관에는 연방기관과 연방주체 산하 보건기관, 연방과학아카데미, 기타 의료기관 및 국영 제약기업 등이 포함되는데 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의 비중이 80%에 달함.
-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 역시 의료부문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

□ EAEU내 국별 의료산업현황: 러시아

- 러시아의 경우, 보건의료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가 정상 궤도를 찾는 2021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보건의료비 지출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규모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표 18 〉 러시아의 보건의료 시장:2018~2024년

구분	2018	2019	2020(e)	2021(f)	2022(f)	2023(f)	2024(f)
보건의료비 지출 (십억 달러)	85.8	87.8	85.3	93.8	96.9	99.8	104.3
전년대비 성장률(%)	-0.8	2.4	-2.9	9.9	3.3	3.0	4.5
GDP대비 비중(%)	5.2	5.2	5.4	5.3	5.3	5.2	5.2

* 자료: Fitch Solutions, "Russ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Q3, 2020, p. 14.

-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회복과 정부재정 여건의 개선으로 2021년부터 성장세를 이어가 2021년과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각각 9.9%와 3.3%에 달할 것
 - * 다만 절대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보건 의료비 지출은 5.2~5.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2월 「보건·의료 증진(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약 34조 9,100억 루블을 관련분야에 투입 예정
- 프로그램의 예산은 8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집행되는데, 구체적인 분야로는 △1차 의료기관 시스템의 개선, △현대적인 아동 의료 인프라 시스템 마련, △국가 의학 연구센터 네트워크 개발 및 혁신 의료기술 도입, △통합 건강정보 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⁷⁾
- 정부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한 의료부문에 대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예산이 충분히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되고 있으나 고가 장비를 운영하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 장비의 유지·수선에 대한 서비스 부재, 수입된 외국산 장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로 장비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제약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러시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동 분야 발전을 수입대체화전략 중 최우선 순위로 간주하고 육성정책을 전개
 - 「제약전략 2020(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

7)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https://minzdrav.gov.ru/ministry/programms/health/info>,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프로그램은 제약산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 2020년에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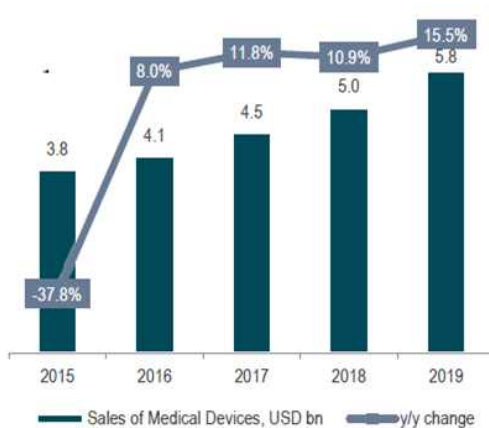
- 이후 2024년까지 계속될 「의약·의료산업발전 국가프로그램(Развитие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2013 – 2024 годы)」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 생산을 추진

○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장의 성장세에 더해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확대도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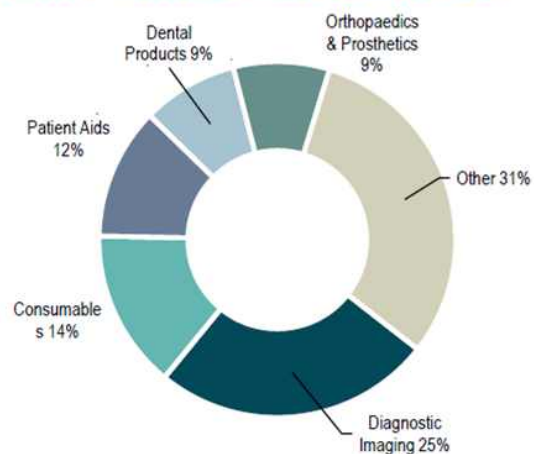
- 의료기기의 러시아 내 매출액은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2015년 연간 판매액은 약 3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 45억 달러, 2019년에는 58억 달러를 기록

< 그림 2 > 러시아 연도별 의료기기 매출액 및 카테고리별 비중

Sales of Medical Devices



Sales of Medical Devices by Type, 2019



* 자료: Fitch Solutions, “Russia Pharma & Healthcare Sector 2020/2021,” EMIS Insights Industry Report, p. 67.

- 특히, 2019년은 2018년도에 비해 15.5%의 연간 매출 성장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금액을 기록
- 의료기기 가운데, 영상진단장비(Diagnostic Imaging)의 판매가 2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고, 이어 소모품(14%)과 환자보조용품(12%), 치과용품(9%) 등의 판매 높음.
- 그러나 제약시장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제품경쟁력은 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영상진단장비의 약 65%, 소모품과 치과용품의 각각 약 70%와 80%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 EAEU내 국별 의료산업현황: 카자흐스탄

-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도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지출이 커지면서 의료산업규모는 확대 추세
 - 2015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 이 법안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제도 도입의 방향을 설정
 -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사회의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 의료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일정 비율을 분담하여 지불하고,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국가 ‘의료보험펀드(Фонд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 표 19 〉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시장: 2018~2024년

구분	2018	2019	2020(e)	2021(f)	2022(f)	2023(f)	2024(f)
보건의료비 지출 (십억 달러)	5,49	5,63	6,03	6,88	7,62	8,50	9,38
전년대비 성장률(%)	7.9	2.5	7.1	14.1	10.7	11.7	10.3
GDP대비 비중(%)	3.1	3.1	3.7	3.8	3.9	4.0	4.0

* 자료: Fitch Solutions, "Kazakhsta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Q1, 2021, p. 14.

- 2020년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6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7.1%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10%대의 성장으로 2024년에는 93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20년대 이후 이런 가파른 성장세와 보건시장 확대에는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개선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2024년까지 GDP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제약시장이나 의료기기 시장의 상황도 러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국 내 생산은 미미하며 대부분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 2019년 기준, 의약품 수입액은 약 4,262억 텡게(11억 1,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5,589억 텡게(14억 달러)에 이르나 상대적으로 수출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의료기기 시장 역시 자국 내 생산보다는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

□ EAEU내 국별 의료산업현황: 벨라루스

○ 벨라루스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은 향후 증가하겠지만
성장은 정체될 것으로 보임

– 보건의료비 지출은 2019년 약 38억 9,000만 달러로 정점을
이룬 뒤 향후 GDP 대비 7.2%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보건의료 시장규모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불안한 대외환율이 달러
화로 표시되는 시장규모에 영향

〈 표 20 〉 벨라루스 보건의료 시장: 2018~2024년

구분	2018	2019	2020(e)	2021(f)	2022(f)	2023(f)	2024(f)
보건의료비 지출 (십억 달러)	3.56	3.89	3.78	3.19	3.11	3.22	3.37
전년대비 성장률(%)	6.9	9.4	-3.1	-15.5	-2.7	3.6	4.7
GDP대비 비중(%)	5.9	6.5	7.1	7.2	7.2	7.2	7.2

* 자료: Fitch Solutions, "Belarus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Q1,
2021, p. 12.

– 벨라루스 정부는 2016년 11월 ‘세계은행’으로부터 보건의료
시장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억 2,500만 달러의 차관 공
여를 승인받음.

– 이 차관을 통해 정부는 ‘국가 보건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
(Health System Modernization Project)’를 수행

– 주요 목표는 △정보 통신 기술 기반의 e-health 시스템 구
축 및 임상 솔루션 지원 시스템 도입, △비전염성 질병 관

리에서 역량 강화, △신생아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등

- 벨라루스 제약시장의 경우, 자국 내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에 의존
 - 자국 내 의약품 생산은 2014년 약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정도였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19년에는 6억 4,580만 달러, 생산품의 수출비중은 44.5%까지 이룸.
 - * 생산품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수출

〈 표 21 〉 벨라루스 제약시장: 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규모 (백만 달러)	537.4	501.7	594.6	608.1	645.8
전년대비 성장률(%)	6.4	-6.1	19.3	2.3	6.2
수출 (백만 달러)	142.7	157.0	205.1	239.6	287.3
생산 중 수출비중(%)	26.7	31.2	34.5	39.4	44.5

*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투자민영화청(NAIP), KOTRA "2021 벨라루스 진출전략, " p. 26에서 재인용

-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제약기업으로 ‘Belmedpreparaty’社가 있는데, 1929년 소비에트 시기에 설립되어 벨라루스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기업
- 벨라루스 의료 관련시장의 특징은 벨라루스의 일반적인 제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제약이나 의료기기 등의 자국 생산 제품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

2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육성

□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방향

- 디지털 경제 구축이 EAEU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경제연합체의 구심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
 - EAEU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산업화 및 가치사슬의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 기반을 공유하는 과정이 공고화되어야 함.
 - EAEU는 2016년 이후 경제연합 차원에서의 디지털 경제 구축 방향에 대해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라는 형식의 추진방향으로 정리

〈 표 22 〉 EAEU의 디지털 어젠다 추진내용

구분	주요 내용
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 되지 않은 전통자산의 가치하락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두뇌유출의 방지 •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의 배경이 되는 전통적인 제도와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경쟁력 상실 • 디지털로 ‘연계된(connected)’국가 및 주체와 그렇지 못한 것 간의 간극을 만들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 플레이어들의 확산 • 디지털 기술은 국가나 지역 간의 경제통합에서 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와 국가의 성장에 있어 주요 요인, 디지털화는 EAEU의 경쟁력 증대에 중요한 역할 가능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경제 구축, 포괄적인 현대화, 지역 협력을 통한 EAEU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p>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개발과 글로벌 신경제시스템 및 신시장 발전에서 EAEU 국가들의 참여 • 지역 차원에서 디지털화의 다양한 부수효과 달성 및 소비자와 비즈니스를 모두 끌어들이는 디지털 공간 마련
우선 추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EU 국가들의 법제화 균형과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발전 •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상호 교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의 디지털 공간 창조 • 공공부문, 비즈니스 주체와 개인들 간 국제상호작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ICT 기술의 활용과 확대 • EAEU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행과 발전

* 자료: Navas-Sabater, Juan, and Oleg V. Petrov, "The EAEU 2025 Digital Agenda: Prospects and Recommendations," Overview report, The World Bank, 2018, p. 6.

- 디지털 어젠다는 ICT 기술발전과 디지털 경제구축을 통해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EAEU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 이를 위해 회원국의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공동의 디지털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우선 추진분야로 삼고 있음.
- 2020년 1월 31일 알마티(Almaty)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회의에서 이사회 의장인 Tigran Sargsyan은 EAEU 회원국은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디지털 전환은 EAEU 회원국 모두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⁸⁾
- 대부분이 자원의존국인 EAEU 국가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경

8) "Тигран Саркисян: «Цифров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страны ЕАЭС должны осуществлять вместе», Jan. 31, 2020,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31-01-2020-4.aspx> 검색일: 2021년 8월 31일)

제발전은 ICT 분야의 육성과 연계되어, 비자원부문의 수출 증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⁹⁾

* EAEU 회원국 모두 디지털 경제 육성과 공동의 시장 창출, 더 나아가 연계된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명제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 러시아는 EAEU 차원에서의 디지털 경제 육성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면서 ICT 기술발전을 통해 자국의 디지털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 2017년 7월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연방의 디지털 경제(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프로그램을 승인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사회구현을 위한 생태 인프라의 조성과의 연계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기술의 육성 및 기존 산업 분야에의 디지털 기술접목 등을 러시아 경제 디지털화의 목표로 제시

-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5가지 주요 과제로, 지식 정보화를 위한 공동의 공간창조, ICT 기술발전, ICT 부문의 경쟁력 확보, 기술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에서 국익 확보 등의 5가지를 선정¹⁰⁾

- 이후 2018년 1월 발표된 프로그램의 세부 로드맵에 따르면, 법제도 마련, 인재양성, 정보인프라,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2024년까지 예산 등의 세부계획 마련¹¹⁾

9) T.V. Voronina, N.N. Yevchenko, A.B. Yatsenko, and D.M. Madiyarova, "Peculiarities of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of Economies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States," *European Research Studies Journal*, Volume XXI, Special Issue 2, 2018, p. 1022.

1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8 июля 2017 г. № 1632-р. с. 1-87.

11) 이후 2019년 5월 28일 ‘디지털 개발에 관한 정부 상임위원회’를 통해 상기의 4개 분야에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행정의 2개 분야를 추가하였음.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러시아 IT 클라우드 시장과 공공부문 수요 〉

○ IT 클라우드 시장, 특히 공공부문의 성장은 러시아경제의 디지털화에 있어 주요 추동력이 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러시아의 전체 IT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약 10억 7,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에 비해 26.9% 성장
- 러시아 클라우드 시장은 공공부문의 시장 규모가 민간 부문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성장이 시장을 견인

〈 러시아 공공부문 IT 클라우드 시장규모와 성장률 〉



* 자료: Облачные сервисы (рынок России) (<https://www.tadviser.ru/index.php/> / Облачные сервисы (рынок России), 검색일: 2021년 9월 1일

○ 2019년 기준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은 729억 루블을 기록해 전년대비 3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도 927억 루블에 달한 것으로 예상

- 이후 2024년까지 시장규모가 1,977억 루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도 2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서버 용량을 갑작스럽게 확대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나서면서 금융, 도소매업 등의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성장

ерации, (<https://digital.gov.ru/ru/activity/directions/858/>, 검색일: 2021년 9월 1일)

- 카자흐스탄 정부도 지난 2017년 12월 디지털 경제육성을 위한 국가 계획인 ‘디지털 카자흐스탄(Digital Kazakhstan)’을 채택
 - 동 국가계획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인프라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
 -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동안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의 디지털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 표 23 〉 카자흐스탄 정부의 디지털 경제 육성방향

목표	주요 내용
경제의 디지털화	국가경제의 전통적인 산업부문을 생산성과 자본집약도를 향상시키는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
디지털국가로의 이행	국민과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국가기능 전환
디지털 실�크로드 실현	데이터의 전송, 저장, 처리를 위한 빠르고 안전한 인프라 개발
인적자본 개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창조적 사회 구현
혁신생태계 창조	비즈니스, 학계, 정부의 안정적인고 수평적 연결을 통해 기술, 기업가 정신, 혁신을 촉진하는 조건 구축

*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нноваций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Цифровой Казахстан,’ с. 6.

- 디지털경제화의 실현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산업별 지표로는, 2022년까지 제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49.8% 달성,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30만 명, 인구의 인터넷 사용자비중을 82.3%까지 향상 등¹²⁾

-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기반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부문 발전에도 힘쓰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스마트시티 육성으로, 정부는 ‘누르술탄(Nursultan)’ 북쪽의 소도시인 ‘아크콜(Akqol)’을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운영
 - * 아크콜은 누르술탄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인구 약 13,000 명의 작은 도시로, 감시카메라가 행인들의 움직임과 무기소지여부 등을 자동적으로 포착하여 위험여부를 감지하며 데이터는 중앙통제소에서 통합관리하는 등 스마트시티로 기능

- 벨라루스의 루카셴코(Lukashenko) 대통령은 2017년 ‘디지털 경제 발전에 관한 법령(О развити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제 8호에 서명
 - 동 법령의 발효를 통해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간을 갖추게 되었음.
 - 벨라루스 정부는 디지털인프라 마련과 서류없는 무역시스템의 구축, 전자정부시스템의 구현 및 주요 산업영역에서 ‘Industry 4.0’을 실현하는 것을 단계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¹³⁾

- 벨라루스 정부는 2005년 9월 ‘하이테크 파크(Hi-Tech Park)’라는 명칭의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IT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신산업 유치를 통해 디지털 경제발전의 기반산업을 육성

12)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нноваций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http://mic.gov.kz/en/news/national-digital-kazakhstan-programapproved-government> 검색일: 2021년 9월 2일)

13) Stat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Belarus,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Belarus is in line with world trends, by Alexander Shumilin,” 27, Oct. 2017, (<http://gknt.gov.by/en/news/2017/development-of-digital-economy-in-belarus-is-in-line-with-world-trends-by-alexander-shumilin/>, 검색일: 2021년 9월 2일)

하기 위해 노력

- 설립초기에는 입주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여 최첨단 IT 기술 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주를 허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입주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후 진입장벽을 낮춰 IT서비스, 정보 보안 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양적인 성장

〈 표 24 〉 벨라루스 하이테크 파크 신규 입주기업과 수출 금액: 2015~2020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 입주 기업 (개)	15	19	33	268	319	334
수출액 (백만 달러)	70.6	82.1	100.0	140.0	220.0	270.0

* 주: 2020년의 신규입주 기업 수는 2021년까지를 포함한 것임.

* 자료: Hi-Tech Park 홈페이지(www.park.by/about, 검색일: 2021. 9. 2)

- 하이테크 단지에 대한 신규입주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에는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2020년에는 334개 기업이 입주
- 입주 기업에 의한 수출금액도 2016년에는 8,21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7년 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9년 2억 2,000만 달러, 2020년은 2억 7,000만 달러에 이름.
- 사실상, 하이테크 파크는 벨라루스의 IT 산업 및 이와 연계된 신산업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
- 첫째, 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입주 기업에 게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동산세, 토지세, 장비수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해 주고, 근로소득세도 13%대신 9%를 적용하여 감면해 주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

- 둘째, 벨라루스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인 IT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셋째, 경제특구 내에 우수한 IT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상호 정보 및 기술교환 등의 가능성이 높음.

□ EAEU의 디지털 경제 추진관련 문제

○ 국가 간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정도 및 추진 단계가 상이해 동일한 수준에서의 협력 의제 추진에 난항

- EAEU의 디지털 어젠다는 공동의 경제공간 창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국가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정도의 격차 존재

〈 표 25 〉 EAEU 회원국의 정보접근성 지표: 2017년

구분	순위	지표
벨라루스	34	7.87
카자흐스탄	43	7.55
러시아	50	7.23
아르메니아	72	6.52
키르기스스탄	114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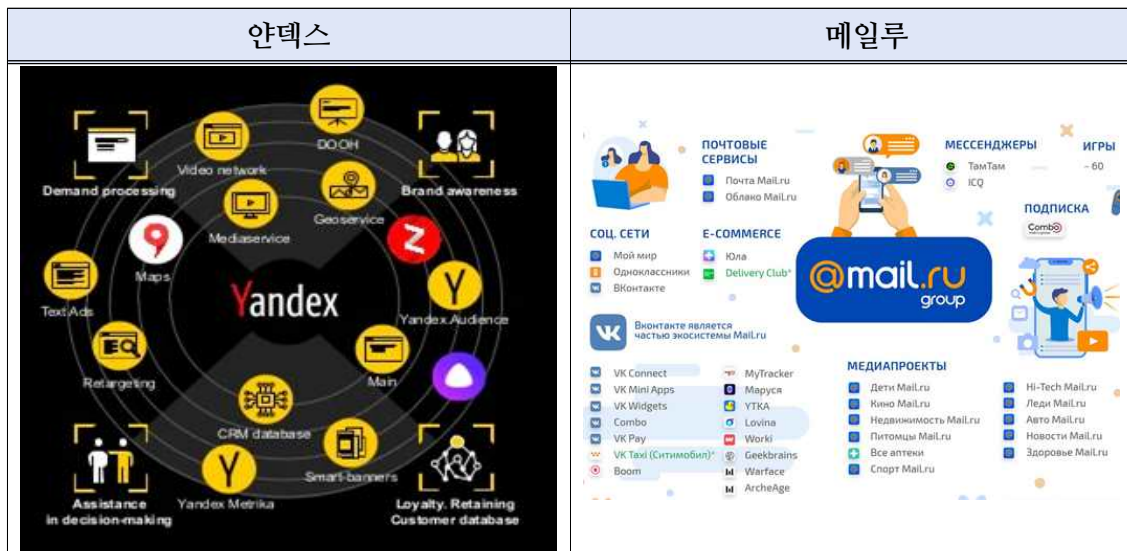
* 주 1: 정보접근성 지표는 1에서 10까지로 측정되며 측정값이 높을수록 양호
 2: 순위는 전세계 17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순위 미발표
 * 자료: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Vol. 1. (Geneva: ITU, 2017), p. 32.

- 디지털 경제 구축의 근간이 되는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50위권 내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정 지표 이상 유지
-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각각 72위와 114위에 그치고 있어 디지털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유선인터넷 사용 비용이 타지키스탄과 함께 CIS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보급에 장애
- 키르기스스탄은 EAEU 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국내법 제정을 완료하고 2019년 제정한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Цифровой Кыргызстан 2019-2023)’ 추진으로 인프라 구축 추진
 - * 동 프로그램 수행으로 뒤쳐진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이행 어려움 상존
- EAEU 내의 디지털 경제 구축은 결국 회원국 간의 교역은 촉진할 것이나 역외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 대두
 - 2019년 8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는 EA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라벨링(labeling)’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 동 제도는 주요 소비상품에 해당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은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를 표기하여 상품의 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이 법안은 EAEU 회원국 별로 적용 제품과 시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미도입 상태에 있음.

- 러시아는 2016년 모피제품에 대해 독자적인 라벨링 제도를 채택한 이래, 2020년 6월부터 담배, 의약품, 신발류 등에 대해 단계적인 라벨링 제도 도입
 - 러시아는 라벨링 제도를 통해 주요 소비재의 EAEU 대내외 물동 흐름을 분석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여 역내 회원국간 교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라벨링이 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러시아 내에서의 유통이 금지되어 수입산 제품의 경우 사실상 러시아로 수입되기 이전에 라벨링이 적용되어야 함.
 - 제품에 따라 단계적으로 라벨링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라벨링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절차상 애로 문제 대두
 - * 포장 라벨링 컨베이어의 설치비용은 최소 300만~500만 루블(3만~5만 달러)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요인
 - 라벨링 표시제도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구축이 궁극적으로 역내교역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지, 역외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 있음.
-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해 역내 공동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 상존
- 2021년 2월 알마티에서 개최된 ‘디지털 알마티 2021포럼 (Digital Almaty 2021 Forum)’ 행사에서 ‘미슈스틴(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러시아 총리는 “EAEU 5개국의 공동 플랫폼 형성을 통해 각 국가가 경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¹⁴⁾

- 공동의 디지털 플랫폼 마련은 주로 러시아 기업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민간 영역에서는 러시아 기업들의 디지털 생태계 영향력이 EAEU 내에서 확대
- 러시아 기술기업인 ‘얀덱스(Yandex)’의 서치 기능은 EAEU 모든 국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얀덱스 택시(Yandex Taxi)’ 서비스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시 중
 - * 카자흐스탄에서의 얀덱스택시 서비스는 택시 호출기능 등과 관련한 특허권 문제로 2021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명령

< 그림 3 > 얀덱스와 메일루의 디지털생태계



* 자료: 각종 자료 종합

- 얀덱스 이외에도 메일루는 EAEU 내에서 이메일 서비스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이며 메일루의 SNS 서비스인 ‘브콘택 켄(VKontakte)’도 인기 플랫폼

14) “Мишустин рассказал о последствиях затягивания цифровизации в ЕАЭС,” (<https://tass.ru/ekonomika/10629905>, 검색일: 2021년 9월 8일)

- 민간영역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과 확장성이 타 국가의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어 EAEU 내에서 궁극적으로 디지털 생태계와 플랫폼의 확장은 러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 디지털 경제의 조성과정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중심력이 강화될 것이며 디지털경제 구축이 타 국가에게는 러시아에 속박되는 또 하나의 기제로 작용 가능
 - 상당수의 CIS 국가들은 과도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으나 EAEU 내에서 러시아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러시아 의존 확대 예상
 - 러시아로서는 디지털 경제 구축이 EAEU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현재의 경제적 구도 하에서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은 교역, 노동이주 및 송금 등에서 러시아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는 또 하나의 구속기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III

EAEU 주요 대외이슈

1

통합의 외연확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 우즈베키스탄의 EAEU 옵저버 자격 획득

○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2월 EAEU의 정식 옵저버(observer)로 가입

-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부터 사실상 EAEU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타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옵저버 가입확정

- 협상과정에서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으로 확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무산

*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정회원국으로의 가입 타진 예상

- 옵저버 가입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EAEU 시장이 규정하는 다양한 제품 및 기술표준의 역내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추진

○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직면한 산업화와 제조업육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튼튼한 경제관계 구축이 핵심임을 자각

-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 EAEU 국가와의 협력관계 중요

- 러시아 주도의 경제연합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은 미르지요예프(Savkat Myrziyoyev) 대통령 취임 이후 개방적인 경제체제의 구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작

- 향후 우즈베키스탄이 EAEU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면, 2015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시작된 EAEU는 이후 처음으로 회원국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 시 이점

① 수출확대

-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7년 신정부 출범이후 기존의 자국시장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수출확대 추진의 전환 모색
 -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정부가 주요 산업 육성에 적극 개입하는 방식의 ‘수입대체화전략 (Import Substitution Strategy)’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시장보호 방식의 산업육성과 성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성장 노선으로 전환
 - 그 간의 해외시장과 일부 단절된 시장보호정책은 외부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지만, 동시에 우즈베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
 - *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인 시장경제전환을 통해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부침이 적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의 더딘 성장은 한계요인으로 평가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노선의 전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 해외시

장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 대통령 자신이 EAEU 회원국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문제 타개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
 - 대통령은 2019년 6월 21일 있었던 의회연설에서 “우즈베키스탄 제품들이 러시아 등 전통적인 해외시장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려면 EAEU 가입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언급¹⁵⁾
 - 대통령의 이와 같은 공식적인 발언은 우즈베키스탄이 기존에 부정적이었던 EAEU 가입을 수출시장 확대라는 이유로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 우즈베키스탄은 EAEU 가입을 통해 러시아라는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
 - 러시아는 인구규모나 소득수준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상품의 주요 수입시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이 생산 가능한 중·저부가가치 제품이 인근 국가인 중국이나 인도시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며 러시아 시장이 주요 타겟으로 가능
 - EAEU 가입으로 역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의 대러시아 수출이 EAEU 회원가입을 통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되는 부문

15) Eurasian Studies, “Uzbekistan Faces Mounting Economic Costs From Staying out of Eurasian Economic Union,”29. July, 2019. (<http://gtreater-europe.org/archives/7169>, 검색일: 2021년 7월 9일)

-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대해 자국산 승용차 수출을 지속해왔는데, 수입관세가 제거될 경우 러시아의 저가 승용차 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이 확대될 것

② 노동이주 및 외화송금유입 안정화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일정 수준이 상으로 해외노동이주가 유지되는 상황

- 우즈베키스탄은 약 3,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구대국이며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증가는 계속되고 있음.

- 농업종사자가 많으며 국내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구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의 러시아 언어권 국가로 노동이주 지속

*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실업률은 2020년 기준 13%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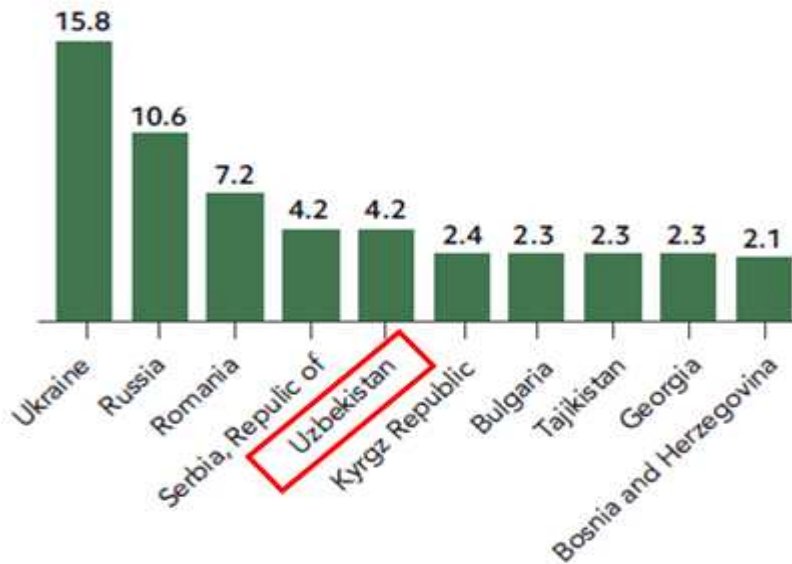
- 상당수의 인구가 러시아를 노동이주 국가로 선택하고 있는데, 과거 동일한 소비에트 연방국가로서의 문화적 친근성, 언어적 편이성 등이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

- 우즈베키스탄은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권에서 노동이주로 인한 송금유입이 많은 국가로 분류

- 2019년 노동이주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유입액은 42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158억 달러), 러시아(106억 달러), 루마니아(72억 달러)에 뒤이은 것으로 세르비아와는 같은 금액을 나타냄.

* 러시아는 송금유출이 많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자국민의 송금유입도 많은 국가

〈 그림 4 〉 동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송금 유입액(2019년, 십억 달러)



* 자료: World Bank, “COVID-19 Crisis Through a Migration Lens,”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2*, Apr. 2020. p. 18.

-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 이후, 이주민들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이는 러시아에 대한 노동이주 증가 및 송금액 확대에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러시아 노동이주 및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은 2019년 기준 GDP의 29.2%를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에 의존

○ 현재 EAEU의 정식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 우즈베크는 이주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원국 가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 가능

- 정식회원국으로 가입되면 노동비자 취득을 위한 러시아어시험, 러시아역사시험, 노동허가 취득이 면제
- 또한 러시아국민이 갖는 사회복지혜택의 일부도 누릴 수 있

는데, 러시아 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취득한 대학학위도 인정

- * 현재 대부분의 노동이주 인구가 저임금 일자리에 일하고 있으나 학위 인정시 일부는 고임금 일자리에 취업 가능

③ EAEU 중심의 디지털·신산업육성 촉진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차원에서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2020년 3월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령 UP-5953 ‘2017-2021년 과학, 교육 및 디지털경제 발전의 해 국가발전 프로그램’ 시행으로 디지털경제관련 다양한 국가인프라 구축노력 표명¹⁶⁾

- * 국가 전역에 약 80만개 브로드밴드 인터넷 포트 및 12,000km에 달하는 광통신 케이블 설치, 도로 인프라, 금융서비스 제공, 수자원개발, 농업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 이어 2020년 4월에는 앞서 대통령령을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법령 PP-4699 ‘전자정부 및 디지털 경제의 광범위한 도입을 위한 조치’를 발표¹⁷⁾

- * 디지털 경제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제 수행, 2023년까지 전자정부 서비스 비중을 60%까지 확대 등 추진방안 포함

○ 우즈베키스탄은 EAEU 가입을 통해 러시아 중심의 디지털경제

1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ПО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ДЕЙСТВИЙ ПО ПЯТИ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2017-2021 ГОДАХ В «ГОД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ПРОСВЕЩЕНИЯ 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https://lex.uz/docs/4751567>, 검색일: 2021년 7월 19일)

1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МЕРАХ ПО ШИРОКОМУ ВНЕДРЕНИЮ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https://lex.uz/docs/4800661>, 검색일: 2021년 7월 19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에서 속도감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EAEU 내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경제 구축에서 동일한 표준체계를 형성하여 빠른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EAEU 가입 이후 러시아 기업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통한 자국의 신기술성장도 기대

□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 시 우려점

① 비관세장벽

- 우즈베키스탄이 EAEU 가입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출확대이나 오히려 EAEU의 가장 큰 맹점은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 EAEU 회원국들은 모두 소비에트 체제 하에 있던 국가들로 시장경제 도입 초기에 자국시장 개방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의 경험을 갖고 있어 외국산 상품의 수입확대에 민감
- 회원국 가운데 시장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러시아도 자국 시장보호에는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회원국의 경우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비관세장벽으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은 수입산 제품에 대한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수입금지, 쿼터제 도입, 가격통제, 공공조달제한, 마케팅 규제 등과 자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방식이 포함
- 과거 CIS 지역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많은 경제공동체의 주요한 실패원인 가운데 하나도 각 국가가 자국시

장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

- EAEU 회원국들은 높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지난 2015년 EAEU 설립 초기 단계에서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서베이에 따르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개국 기업들은 각각의 경우 EAEU 내에서 비관세장벽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수준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¹⁸⁾
 - EAEU의 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2016년 EAEU 국가들 간의 비관세장벽을 망라한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Obstacles Register)를 구축
 - 2017년에는 비관세장벽 ‘백서(White book)’를 발간하기도 하는 등¹⁹⁾ 회원국 간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
- 그러나 EAEU 내에서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지난 2018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생 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

18) Evgeny Vinokurov et al. “Assessing the Impact of Non-Tariff Barriers in the EEU: Results of Enterprise Survey,” *EDB Center for Integration Studies*, Report No. 20, 2015. pp. 1-84.

19) Roman Vakulchuk and Alexander Knobel, “Impact of non-tariff barriers on trade with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Post-Communist Economies*, Vol. 30, No. 4, 2018, p. 464.

- 2018년 10월에는 키르기스스탄이 카자흐스탄에서의 조류독감 발생을 빌미로 카자흐스탄산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카자흐스탄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
- EAEU 내에서 비관세장벽 문제는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광물을 제외하고 회원국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가 농산물인 관계로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 * 결국, EAEU 회원국의 농산물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중복이 경제연합 내의 교역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 우즈베키스탄도 농산물 생산이 많은 국가로 EAEU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들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농산물 부문에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승용차의 경우 러시아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러시아가 수입 확대를 용인할지도 관건

② 두뇌유출(brain drain)

- 경제연합체가 성립되고 회원국 간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회원국내 노동인구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
 - EU가 서유럽 중심에서 동구권 국가들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유럽으로부터 서유럽국가들로 노동인구 이동이 가속화되고 두뇌유출 심화
 - 당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젊은 기술자 등 고급인력의 서유럽 유출로 인해 생산성저하, 성장정체 등의 경제적 문제를 겪은바 있음.

- 2015년 EAEU 성립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러시아로 노동이주가 크게 증가
-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이 성립될 경우 고급인력의 러시아 이주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능력(기억, 문해능력)과 비인지능력(사회성, 직업태도, 의사결정능력, 성취노력)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음.²⁰⁾
 - 본 연구는 노동이주 그룹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나 직업적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의 EAEU 가입은 대학이상의 학위를 상호 인정해 주게 됨에 따라, 고학력 우즈베키스탄인들이 근무여건이 더 양호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음.

③ 디지털산업의 러시아의존도 심화

- 시장경제 도입이후 대부분의 CIS 국가들은 러시아 의존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상당수 국가들에 대해 여전히 통제력 유지
 - 러시아는 에너지, 직접투자, 노동이주와 송금 등을 통해 많은 CIS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통제력을 유지해왔음.
 - CIS 일부 소국의 경우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이나 도움 없이

20) Mohamed Ilsan Ajwad et al. "The Skills Road: Skills for Employability in Uzbekistan," World Bank, 2014, p. 28.

는 자립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 우즈베키스탄도 전임 대통령 시기까지는 러시아와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통해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였으며 현재도 러시아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EAEU가 추진하는 디지털 어젠다는 회원국 공동의 추진방향과 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의 공고화가 될 것

- 2020년 1월 31일 알마티(Almaty)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회의에서 이사회 의장인 Tigran Sargsyan은 EAEU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은 모두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우즈베키스탄은 EAEU 가입을 통해 자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경제 구축에서 일정한 표준성과 방향성을 확보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 EAEU-이란 FTA 추진

○ EAEU는 2015년 출범이후 구 소비에트권 내에서의 회원국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외연확장 노력 지속

- 2015년 11월 가장 먼저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10월 정식으로 발효되어 그 이후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는 크게 성장
- 이란과는 2018년 5월 임시 FTA를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

터 발효되어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인 관세인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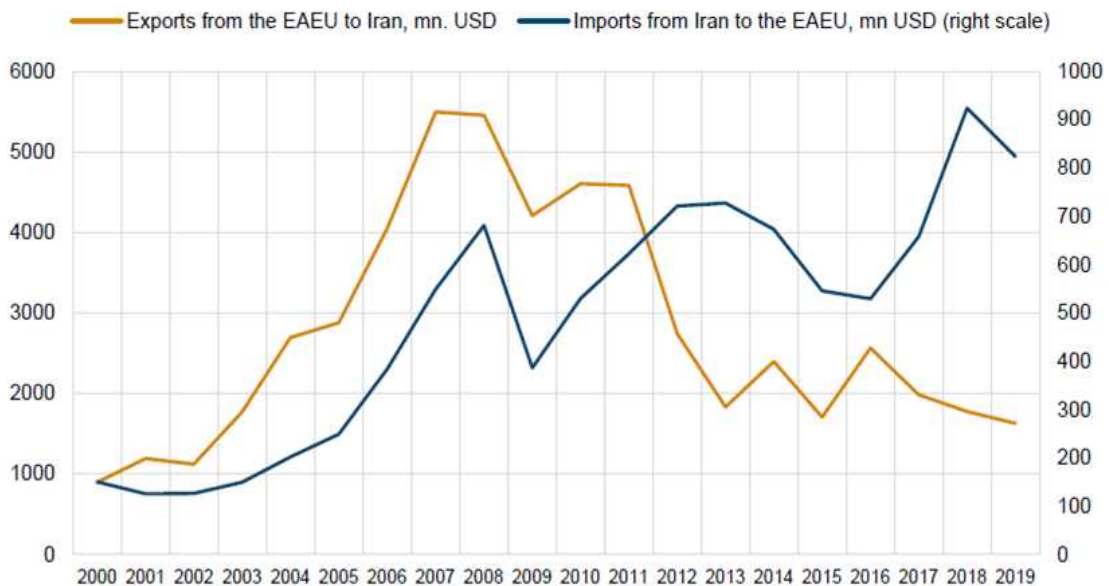
* 양국이 관세인하에 합의한 품목은 총 862개(이란 수출 502개, EAEU 수출 360개)로, 상호무역품목의 약 50%에 이릅니다.

- 이 밖에도 한국, 싱가포르, 중국, 세르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등과도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란과 EAEU간 교역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서방의 대 이란제재이후 감소

- EAEU의 대 이란 수출은 2007년 약 55억 달러 수준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FTA 체결이후에도 별다른 성장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림 5 〉 EAEU-이란 연도별 교역금액: 200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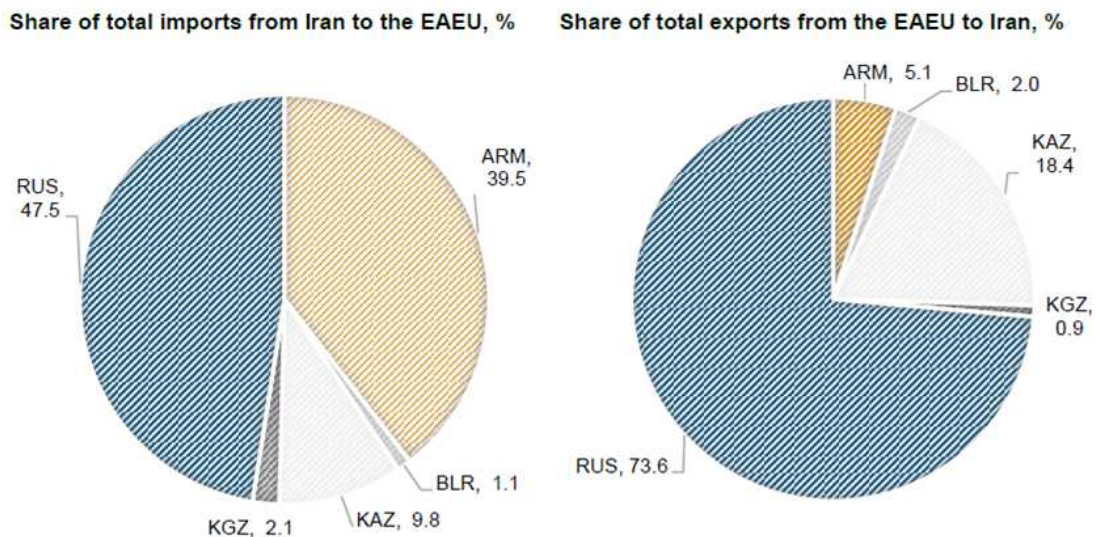


* 주: 1. 주황색 선은 EAEU → 이란 수출(좌), 청색 선은 이란 → EAEU 수출(우)
2. 단위는 백만 달러

* 자료: Amat Adarov and Mahdi Ghodsi, "The Impact of the EAEU-Ir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Working Paper 179, May, 2020. p. 7.

- 이란의 EAEU에 대한 수출도 2018년 9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9년에는 감소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양국 간 총 교역이 29억 달러로, 2019년에 비해 18.5% 성장했는데, 2021년 1분기까지 EAEU의 대 이란 수출은 전년대비 43.5%, 수입은 20% 증가
- 이란의 대외교역에는 미국 등 서방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크게 작용해왔는데, 반복된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의 교역 조건이 악화된 상태 지속
 - * 2021년 7월 기준, 2018년 8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란과 제3국간 교역은 크게 축소
- 2019년 기준, 이란이 EAEU에 수출하는 국가별 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4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 아르메니아가 39.5%를 차지
 - * 수입의 경우, 러시아가 73.6%, 카자흐스탄이 18.4%를 나타내고 있으며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과의 교역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

〈 그림 6 〉 EAEU-이란 국별 교역금액: 2019년



- * 주: (좌) 이란 → EAEU 수출비중, (우) EAEU → 이란 수출비중
- * 자료: Amat Adarov and Mahdi Ghodsi, “The Impact of the EAEU-Ir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Working Paper 179, May, 2020. p. 8.

- 이란은 EAEU와의 완전한 FTA 실현으로 자국이 처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EAEU와의 협력은 이란이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음.
 - 미국은 제3국이 이란과 미 달러로 결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EAEU는 탈 달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제협력체 안에서 이란의 운신의 폭이 확대 가능
 - 이란은 EAEU와의 FTA를 통해 자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의 유라시아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
- EAEU로서는 이란과의 전면적 FTA는 경제연합체의 외연적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 EAEU와의 FTA 대상이 베트남에 이어 이란으로 확장된다면 EAEU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유라시아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시킬 것
 - 이란과 EAEU 개별국가들의 교역을 보면 러시아 및 아르메니아와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르메니아는 경제규모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FTA 체결 후에는 더욱 관계가 밀접히 유지될 수 있음.

- 최근 러시아-아제르바이잔-이란을 연결하는 ‘남북국제운송 회랑(INSTC)’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완공되면 러시아-이란 간의 운송여건이 개선되면서 교역촉진에 기여예상
 - * 이 노선은 현재 이란 내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연결이 완공된 상태이며 이란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다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등 주요국들의 주요 수출품이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자원에 집중되어 있어 이란과 EAEU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
- 양국은 2021년 하반기에 협상을 재개하여 마무리하고 정식 FTA 체결을 추진
 - EAEU와 이란 양측 모두 지난 임시 FTA 체결이후의 성과에 만족스러운 입장이며 2021년 하반기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정식 FTA 체결 계획
 - * 임시 FTA 체결 초기의 교역은 만족스럽지 못했으나 점차 개선되어 제한적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 이란의 에하크 자한기리(Es’haq Jahangiri) 제 1부통령은 EA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이란의 산업과 농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EAEU는 이란의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 표명²¹⁾
 - 지난 2021년 1월말 양측은 회담을 갖고 지난 FTA의 성과를 평가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아르메니아와의 개별회담을 통해 교역장애물 제거 및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상하는 등 논의 지속

21) Tehran Times, “Free trade with EAEU a good opportunity for Iran,” 14, June, 2021, (<https://www.tehrantimes.com/news/461962/Free-trade-with-EAEU-a-good-opportunity-for-Iran>, 검색일: 2021년 7월 29일)

- 「중국-유라시아-유럽」 연계 운송루트와 EAEU
 - EAEU 다수의 국가들은 중국과 유라시아지역을 연계하는 운송루트에서 자국을 관통하는 방식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
 - 카자흐스탄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접경도시인 호르고스(Khorgos)를 통해 중국과 카스피해를 연계하는 루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 * 여러 가지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르고스를 통한 물류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를 연결하는 BTK 라인에서 소외되어 있어, 최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루트를 연결하여 물류체계 확보 노력
 -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군사충돌이 있었으나 평화협정 체결이후 상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 키르기스스탄도 중국과의 연계루트가 활성화되면 자국의 중개무역 기능이 과거와 같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 러시아는 현재 유라시아의 주요 운송루트인 「중국-카자흐스탄(Dostyk)-러시아(TSR)」 루트가 다른 노선들에 의해 운송일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개선필요
 - 다수의 물류운송루트 가운데 활성화되는 루트를 중심으로 EAEU 내에서 국가 간의 교역 등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

- EAEU 국가가운데 중국과의 물류인프라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인프라 건설 활발
- 주요 철도루트 가운데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루트와 우회하는 루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은 자국 연계루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CKU)」 철도 루트

- 카자흐스탄을 우회하는 대표적인 노선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타 중앙아시아로의 노선 확장 가능
- 이 노선은 중국의 '란저우(Lanzhou)'에서 출발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오쉬(Osh)'를 지나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Andijan)'과 '타슈켄트(Tashkent)'까지 연결

< 그림 7 >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루트



* 자료: silk road briefing

- 이 운송회량은 공식적으로 2017년 10월에 개통되었고, 2018

년 2월부터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중동과 남부유럽까지 연결되는 최단루트로 평가

- 이 노선의 장점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란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중앙아시아 각 지역과의 연계성이 매우 뛰어나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운송루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구간은 완공되었지만, 양쪽을 연결하는 키르기스스탄 국내 구간은 아직 미완공 상태
 - 현재 키르기스스탄 내의 구간(약 400km)은 상품이 트럭으로 환적되어 운송되고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으로서는 철도노선의 건설을 완공할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
 - 또한, 키르기스스탄이 카쉬가르에서 안디잔까지 연결되는 루트를 자국 내 북쪽의 인구밀집지역과 연계시키고자 하여 3국 간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²²⁾
 - 이에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내의 철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황이 개선되어 완공된 이후에는 노선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카자흐스탄을 배제하는 노선으로서 중국의 또 다른 옵션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
 -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철도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은 현재도 높은 중국차관 의존비중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
- * 키르기스스탄의 대외부채는 2020년 말 기준, 약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

22) The Third Pole, “China-Kyrgyzstan-Uzbekistan railway remains uncertain,” 13, Jan. 2021, (<https://www.thethirdpole.net/en/regional-cooperation/china-kyrgyzstan-uzbekistan-railway-remains-uncertain>, 검색일: 2021년 8월 2일)

려지고 있는데 이 중 약 40%인 20억 달러가 중국에 대한 부채

□ 「중국-카작-우즈벡-투르크-이란」 철도 루트

- 이 노선은 중국의 ‘이우(Yiwu)’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이란까지 연결
 - 출발점인 중국의 이우는 중국에서 소규모 일용품 및 상품의 제조 및 도매가 가장 활발한 지역가운데 하나로 유럽에 대한 수출이 많음.
 - 이 노선은 중국에서 이란까지 가는 전체 구간 중에서 카자흐스탄을 동-서로 가로지르지 않고, 알마티를 포함한 일부 남부지역을 통과

〈 그림 8 〉 「중국-카작-우즈벡-투르크-이란」 루트



* 자료: Economist.com

- 또한 이 노선은 앞의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노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를 경유하여 이란까지 연결되는 것이 특징
 - * 다만, 중앙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노선에서 제외
- 이 노선이 갖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란의 최대교역 파트너로서 이란과 중국의 교역량이 이란과 중앙아시아의 그것에 비해 많아 기본적인 물동량이 보장된다는 것
- 이 노선은 EAEU 가입국인 카자흐스탄으로서는 자국의 일부만 경유, 키르기스스탄은 소외되어 EAEU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
 - 중국에서 연결되는 카자흐스탄의 구간이 동-서를 연결하지 않고 알마티와 남부 일부지역만 통과하게 됨으로 CKU 노선과 마찬가지로 트랜짓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작을 것
 - 다만, 우즈베키스탄의 EAEU 회원가입이 현실화되고 이란과 EAEU간 정식 FTA가 체결되면 동 노선을 통한 각 국가 간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역내 경제적 효과는 확대 예상
 - 이란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물동을 경유하는 물류허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²³⁾ 이 노선의 활성화를 통해 대 중국 물류접근성 개선 기대

□ 「중국-키르기스-타지-아프가니스탄-이란」 철도 루트

- 중국에서 이란을 연결하는 루트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23) The Diplomat, "First Direct Train from China Arrives in Iran," 16, Feb. 2016. (<https://thediplomat.com/2016/02/first-direct-train-from-china-arrives-in-iran/>, 검색일: 2021년 8월 4일)

스탄,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 노선

- 이 노선은 2014년 12월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산베(Dushanbe)에서 5개국이 합의한 결과에 따라 건설이 진행 중에 있음.

〈 그림 9 〉 「중국-키르기스-타지-아프가니스탄-이란」 루트



* 자료: cacialyst.org

- 중국에서 이란까지 총연장 약 2,000km의 길이로, 노선의 약 50%가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는 것이 특징이며 결국,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정치적 안정과 이에 따른 철도완공 여부가 동 루트의 향후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
- 2020년 12월 이란의 ‘카프(Khaf)’와 아프가니스탄의 ‘구리안(Ghurian)’구간의 철도가 개통되면서 향후 이란-아프가니스탄 양국의 교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²⁴⁾

* 이 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로를 통해 이란의 여

러 도시까지 화물운송

- 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자금을 공여하고 있음.
- 이 노선은 EAEU 국가 가운데는 키르기스스탄만을 경유하고 있어 경제연합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
 - 이 노선은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일부만을 관통하고 있어 활성화되면 사실상 EAEU에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아프가니스탄 내부 사정에 따라 노선의 실제 완공 및 활성화에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 있음.

□ EAEU의 운송·물류 인프라 계획의 배경과 기타 루트

- EAEU는 현재 회원국 내의 물류연계의 원활화와 공동의 운송 시스템 통합을 기반으로 한 역내 시스템 개선에 역점
 - 현재 운송·물류 부문에서 EAEU의 주요 역점과제는 운송시스템의 표준화 및 현대화를 이루어 회원국 간의 물류기능이 개선되는 방향에 집중
 - 중국으로부터 유럽을 연결하는 트랜짓 지역으로서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요인을 제거
- EAEU 국가들은 대체로 자국 내 운송인프라의 현황이 열악한

24) The CACI Analyst, "Iran and Afghanistan Inaugurate Cross-Border Railway," 27, Apr. 2021,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670-iran-and-afghanistan-inaugurate-cross-border-railway.html>, 검색일: 2021년 8월 4일)

상황에 처해 있어 트랜짓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시스템 개선 필요

-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EAEU의 트랜짓 핵심국가이나 역내 물류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 표 26 〉 카자흐스탄의 물류성과지수(LPI): 2010~2018년

연도	성과 지수	통관	물류 인프라	물류 역량	국제운송	화물추적	적시성
2010	2.83	2.38	2.66	2.60	3.29	2.70	3.25
2012	2.69	2.58	2.60	2.75	2.67	2.83	2.73
2014	2.70	2.33	2.38	2.72	2.68	2.83	3.24
2016	2.75	2.52	2.76	2.57	2.75	2.86	3.06
2018	2.81	2.66	2.55	2.58	2.73	2.78	3.53

* 주: 각 지표는 5점 만점으로 1~5까지의 점수로 표기

* 자료: World Bank, LPI Country Score Card Kazakhstan 2010-2018 (www.lpi.worldbank.org, 검색일: 2021년 9월 14일)

- 2010년 이후 통관, 화물추적, 적시성 등의 분야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물류인프라, 물류역량, 국제운송 등은 오히려 환경이 악화됨.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9년 12월, 기존의 운송 인프라 개선 계획인 ‘누를리졸 2015-2019(Nurly Zhol 2015-2019)’에 이어 ‘누를리졸 2020-2025(Nurly Zhol 2020-2025)’를 채택

〈 표 27 〉 누를리졸 2020-2025 계획의 추진목적

1	국내 교통인프라의 개선과 연계성 강화
---	----------------------

2	효과적인 트랜짓, 수출, 물류인프라 발전을 통한 수출정책의 현실화 및 ‘확장된 트랜짓(Greater Transit)’ 루트의 촉진
3	인프라 콤플렉스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방법론적 자원제공의 개선
4	운송 인프라 주체들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5	운송 인프라의 운영 및 환경안전 보장

*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Нурлы Жол" на 2020-2025 гг.

- 카자흐스탄은 현재 추진 중인 ‘누를리졸 2020~2025’의 시행으로 자국 내 전반적인 트랜짓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역점
-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도 중국과 연계한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도 「중국-키르기스-타직-아프가니스탄-이란」 루트의 활성화를 통해 트랜짓 국가로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나 인프라 건설에 따르는 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러시아는 2018년 푸틴 4기 정권 출범이후 국내 교통인프라 개발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약 6조 3,000억 루블을 투입하여 사업진행
 -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사마라-크라스노다르-노보시비르스크’를 연결하는 신규철도를 건설하여 중부내륙의 철도인프라 개선 추진
 - 러시아가 중국과의 교통인프라 연계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중요 프로젝트는 ‘Meridian highway’ 로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 그림 10 〉 러시아의 Meridian highway 루트



* 자료: <https://news.cgn.com>

- 앞선 유라시아 지역의 운송루트가 대부분 철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루트는 자동차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2030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약 6,000억 루블이 투입될 예정
 - * 이 고속도로 루트 상의 주요 지역에 생산·물류허브 등을 조성하여 루트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추진
- 문제는 EAEU 국가들이 저마다 중국과의 운송인프라 연계를 강화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후 역내 경쟁과다 및 자원배분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
 - 현재 EAEU 내에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건설 계획들은 저마다 막대한 자원투여를 전제로 함.
 - 완공 이후에는 자국을 경유하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결국 역내 국가 간 과다경쟁 양상으로 흐를 우려가 큼.

□ EAEU 대내 현안

- 의료·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EAEU는 아직 대내적으로 단일화된 법규나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한 몇 가지 공동 대응방안을 제외하고 EAEU 국가들은 의료·보건시스템 부문에서 단일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 공공중심의 의료체제에서 민간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
 - 하지만, 개별 국가들은 국가차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제약부문 경쟁력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
 - 단기적으로 EAEU 차원에서의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한 공동의 발전계획이 나오기는 어려우며 자국의 의료체계 개선이 일정수준 이루어진 후에 논의될 과제로 판단
 - 다만,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EAEU 공동의 인증 및 규격을 마련할 계획
-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의료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에 한해 서만 의료서비스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EAEU 국가들의 까다로운 규정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협력이 가능
 - 첫째는 우리 의료기관의 현지 의료기관 위탁경영 및 컨설팅으로 한국의 의료수준과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협력 가능성 높음.

- * 현재 다수의 한국 의료기관들이 해외로부터의 자국 병원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의뢰를 받고 있음.
- 이 같은 예로, 한국의 '선병원'은 벨라루스의 민스크에 2018년 설립된 '가즈프롬 메디컬 센터(Gazprom Medical Center)'의 컨설팅 및 위탁경영을 수행 중
- 두 번째는 한국 의사의 면허로 현지 진료 가능한 의료특구에 직접적인 투자방식으로 진출하는 것
- EAEU의 가장 큰 의료시장인 러시아는 자국 내 진료 활동에 있어, 한국의 의사면허를 인정하지 않으나 정부가 지정한 의료특구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가능
 - * 현재 스킨코보 혁신센터 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다사 메디컬 센터(Hadassah Medical Center)'가 입주해있으며 분당 서울대병원도 입주 추진 중
- 의료기기의 경우, 일부 품목은 EAEU 수입이 완화되었지만, 동시에 의료용 물품과 의료기기에서 EAEU산 제품의 의무 사용비율을 상향해, 특정 품목에서는 시장 진출이 더 까다로워짐.
- 러시아는 역내 생산제품의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EAEU산을 제외한 외국산 의료용품의 공공입찰금지 품목을 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
- 벨라루스는 자국 내 생산품의 상당액을 러시아 등 EAEU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품은 고부가가치 제품보다는 대부분 단순 의료용품의 카테고리에 속함.

〈 표 28 〉 벨라루스 내 의료기기 생산현황: 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 바늘, 호스, 캐놀라 (백만 개)	177.1	226.2	313.3	287.5	286.1
혈액투석기 및 투열성 장비 (천 개)	13,013	12,833	211	190	274
의료용 피복, 수혈 및 마취장비 (천 개)	13,007	14,358	11,082	8,808	10,204
수술용, 실험용 살균기 (개)	20,591	5,544	18,119	21,429	21,812
컨택트 및 안경용 렌즈 (천 개)	642	471	699	423	314

* 자료: Manufacture of other finished products,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Belarus, p. 251.

- 벨라루스의 의료용품 및 기기 생산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주로 기본적인 수준의 제품생산에 그치고 있으며 정밀한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진단키트, 디지털온도계 등 방역과 관련된 제품을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현지생산을 고려해 볼 만함.
- 제약분야에서 EAEU 시장은 확대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자국 내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지 투자를 기반으로 한 시장진출 가능
- * 역으로, 최근 러시아 코로나 백신인 ‘스푸트닉 V(Спутник V)’의 한국공장 설립 및 아시아 생산기지화도 EAEU와의 제약협력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디지털경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과 EAEU 간 디지털경제와 혁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상 간의 합의와 선언이 필요할 것
 - EAEU 최고결정기관과 한국 정상 간의 디지털 협력에 대한 합의문에서 시작해,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
 - EAEU 의 디지털 전환 작업은 회원국 정부 간 국가원수급의 '최고결의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논의를 거쳐 '정부간 의회(The Eurasian Intergovernmental Council)'와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로 하위 의사결정기관의 단계를 거침
 - 실무그룹을 통해 양국 정상 간 합의된 협력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 및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틀과 로드맵을 구성해야 할 것
- 공동의 협력 분야로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개발과 디지털플랫폼 공간에서의 협력 강화
 - 인적자원개발은 EAEU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디지털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 한국은 디지털 강점인 하드웨어와 인프라 분야에서 EAEU 국가들의 인적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러시아나 벨라루스 같은 국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한국과 공유
 - 디지털플랫폼 공간의 주요 사례로 삼을 만한 것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연계한 협력

- 예를 들어, 스베르뱅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플랫폼(Sberbank's Online Business Partners)에 한국제품의 전용 온라인 판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EAEU 국가들과의 디지털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
- 개별국가 차원에서 러시아는 디지털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인 협력단계를 고려할 필요
 -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2035(NTI;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2035)’ 전략을 통해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혁신산업 부문에 대한 육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
 - * 여기에는 무인항공기, 무인자율주행차, 디지털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등의 혁신산업 분야가 망라
 - 러시아가 강점을 갖고 있고 중점육성하려는 분야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를 우선적인 협력대상으로 삼을 필요
 - 2018년 구축된 ‘한·러 혁신플랫폼’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결합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성 모색
-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역시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방안 모색
 - 벨라루스는 ‘하이테크 파크(Hi-Tech Park)’라는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IT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광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 * 2020년말 기준, 총 입주 기업 수는 969개, 총 근로자 수는 약 65,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벨라루스 경제활동인구의 약 1.4%

에 해당하며 이들의 총 생산금액은 GDP의 3.5%에 달함.²⁵⁾

- 하이테크 파크에 입주한 벨라루스의 IT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카자흐스탄의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연계 산업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협력가능 분야 모색 필요

□ EAEU 대외 현안

- 유라시아 물류운송 체계 변화는 진행 중이나 현재의 운송루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
 -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악타우를 연결하는 철도공사는 2025년 이후가 되어야 완공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자원부족으로 인해 국내철도 연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국-키르기스-타직-아프가니스탄-이란」 노선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인 안정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단기간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재 한국은 유라시아의 물류운송 체계에서 주로 극동지역을 통한 TSR, TCR 루트 또는 중국의 연운항을 경유하는 루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질 것
- 유라시아 물류·운송루트의 다변화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한국은 다양한 루트의 발전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5) Hi-Tech Park, (www.park.by/about,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 다양한 루트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을 경유하는 루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카자흐스탄은 호르고스 이스턴게이트의 개발단계부터 중국과 연계된 자국의 물류체계를 활성화하여 유라시아의 물류 트랜짓 허브화 추진
 - 키르기스스탄도 산업발전 추진과 함께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국가로서 경제적 수혜를 얻기 위해 노력
 - 러시아도 현재 TSR 철도의 현대화, 일부 구간의 고속철도화, 운송시스템 개선, 대체 도로 건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루트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
 -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 시발점이 되는 극동의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대에서는 기존의 블라디보스톡 항이나 보스토치니 항이 아닌 다른 항구를 활용해 물류루트를 단축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변화하는 물류·운송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시험적으로 운행되는 다양한 루트를 시험 및 평가해보고 여러 가지 운송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도로, 철도, 항만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현지 수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EAEU 회원국의 경제적 결속이 강화되고 외부와의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對EAEU 협력전략 필요

- 현재 한국과 EAEU와의 FTA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만약 투자·서비스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 * 한-EAEU FTA는 상품FTA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투자·서비스 FTA로 선회하여 추진 중
- FTA 효과를 상호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같이 한시적인 기간을 상정한 FTA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FTA 방향설정에 반영하는 방식 고려
- 또는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읍저버로 가입하여 EAEU의 내부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참고한 뒤에 정식가입 절차를 논의하는 것도 방법임.
- 중요한 것은 양국의 FTA 추진이 상호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
 - * 현재 상품FTA 추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EAEU의 자국 상품시장 개발에 따른 피해 우려
- 상품시장 잠식에 대한 EAEU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산업에 대한 EAEU 제조업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EAEU 내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기 때문
 - * 러시아 등은 EAEU 내 생산제품에 한해서만 공공입찰 자격을 주는 등 FTA 체결 하에서도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제조업투자 중요
- EAEU의 대내외적 변화요인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 있음.

< 참고 문헌 >

- 문헌 자료 -

- Ajwad, M. I. et al. "The Skills Road: Skills for Employability in Uzbekistan." World Bank, 2014,
- Kolomeytseva, A. "INDUSTRIAL GROWTH AND THE DISTRIBUTION PATTERN OF MANUFACTURING OUTPUT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UNIDO,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WP 3/2020*.
- The World Economic Forum. "Readiness for the Future of Production Report 2018."
- Vakulchuk. R. and Knobel, A. "Impact of non-tariff barriers on trade with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Post-Communist Economies*, Vol. 30, No. 4, 2018.
- Vinokurov. E. et al. "Assessing the Impact of Non-Tariff Barriers in the EEU: Results of Enterprise Survey." *EDB Center for Integration Studies*, Report No. 20, 2015.
- Voronina, T.V., Yevchenko, N.N., Yatsenko, A.B., and Madiyarova, D.M. "Peculiarities of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of Economies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States." *European Research Studies Journal*, Volume XXI, Special Issue 2, 201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8 июля 2017 г. № 1632-р.

- 인터넷 자료 -

- Eurasian Studies. "Uzbekistan Faces Mounting Economic Costs From Staying out of Eurasian Economic Union." 29. July, 2019. <http://gtreater-europe.org/archives/7169>, (검색일: 2021. 7. 9).
- Hi-Tech Park. www.park.by/about, (검색일: 2021. 10. 1).
- Stat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Belarus.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Belarus is in line with world trends, by Alexander Shumilin," 27, Oct. 2017, <http://gknt.gov.by/en/news/2017/development-of-digital-economy-in-belarus-is-in-line-with-world-trends-by-alexander-shumilin/>, (검색일: 2021. 9. 2).
- Tehran Times. "Free trade with EAEU a good opportunity for Iran." 14, June, 2021, <https://www.tehrantimes.com/news/461962/Free-trade-with-EAEU-a-good-opportunity-for-Iran>, (검색일: 2021. 7. 29).
- The CACI Analyst. "Iran and Afghanistan Inaugurate Cross-Border Railway." 27, Apr. 2021,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670-iran-and-afghanistan-inaugurate-cross-border-railway.html>, (검색일: 2021. 8.4).

- The Diplomat. "First Direct Train from China Arrives in Iran." 16, Feb. 2016. <https://thediplomat.com/2016/02/first-direct-train-from-china-arrives-in-iran/>, (검색일: 2021. 8. 4).
- The Third Pole. "China-Kyrgyzstan-Uzbekistan railway remains uncertain." 13, Jan. 2021, <https://www.thethirdpole.net/en/regional-cooperation/china-kyrgyzstan-uzbekistan-railway-remains-uncertain>, (검색일: 2021. 8. 2).
- "Алексей Оверчук выступил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в рамк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часа." 23, Июня, 2011. <http://government.ru/news/425-86/>, (검색일: 2021. 8. 12).
-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https://minzdrav.gov.ru/ministry/programms/health/info>, (검색일: 2021. 9. 28).
-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digital.gov.ru/ru/activity/directions/858/>, (검색일: 2021. 9. 1).
- "Мишустин рассказал о последствиях затягивания цифровизации в ЕАЭС." <https://tass.ru/ekonomika/10629905>, (검색일: 2021. 9. 8).
- "ГОЛЛАНДСКИЙ ИНВЕСТИТОР В КАЗАХСТАНЕ: ИСТОРИЯ УСПЕХА." 5, Марта 2020. <https://atameken.kz/ru/news/35030-gollandskij-investor-v-kazahstane-istoriya-uspeha>, (검색일: 2021. 8. 24).
- "Пандемия укрепит связи соседствующих государств." 24, Декабрь, 2020, <https://plus.rbc.ru/news/5fdc9c4d7a8aa9a3a0eb19a3>, (검색일: 2021. 8. 17).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МЕРАХ ПО ШИРОКОМУ ВНЕДРЕНИЮ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https://lex.uz/docs/4800661>, (검색일: 2021. 7. 19).
- "Россия и Казахстан: приорите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0. Январь. 2021, https://www.ng.ru/cis/2021-01-10/5_8052_kazakhstan.html, (검색일: 2021. 8. 17).
- "Тигран Саркисян: «Цифров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страны ЕАЭС должны осуществлять вместе»." Jan. 31, 2020,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31-01-2020-4.aspx> (검색일: 2021. 8. 31).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ПО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ДЕЙСТВИЙ ПО ПЯТИ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2017-2021 ГОДАХ В «ГОД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ПРОСВЕЩЕНИЯ 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https://lex.uz/docs/4751567>, (검색일: 2021. 7. 19).

202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1-001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1.1
21-002	2020년 하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	2021.1
21-003	일본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용 전략과 성공사례 분석	2021.2
21-004	러시아의 팬데믹 방역 · 보건 산업 : 코로나19 방역	2021.2
21-005	한-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2021.2
21-006	美 바이든 정부 바이 아메리칸 정책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1.2
21-007	미국·EU 정부의 미래산업 공급망 구축동향 및 전망	2021.3
21-008	코로나19 이후 신북방지역 소비시장 변화	2021.3
21-009	美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전망	2021.3
21-010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 동향과 추진 전망	2021.3
21-011	러시아 수소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	2021.3
21-012	미 신정부 출범 이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과 주요국 동향	2021.4
21-013	2021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출전략 가이드	2021.5
21-014	코로나19 일본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21.5
21-015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2021.6
21-016	러시아의 그린에너지 전환과 한러 협력방안	2021.6
21-017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1.6
21-018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공식 시행으로 기대되는 아프리카 시장 변화	2021.6
21-019	캐나다 스마트팜 시장 동향	2021.6
21-021	한-콜롬비아 FTA 발효 5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 유망품목	2021.7
21-022	2021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2021.7
21-023	아프리카 그린뉴딜 정책동향 및 시사점	2021.7
21-024	중남미 제약산업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1.8
21-025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	2021.8
21-026	해외 기업 ESG 대응 성공사례	2021.8
21-027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영향	2021.8
21-028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2021.8
21-029	중국-유럽 화물열차 동향 및 시사점	2021.9
21-030	호주 수소경제 동향 및 우리기업 협력 방향	2021.9
21-031	GCC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진출방안	2021.9
21-032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2021.10
21-033	러시아 팬데믹 백신 · 치료제 제약산업 및 진출방안	2021.10

21-034	독일 총선 이후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 기회요인	2021.10
21-035	'21년 대미·대중 소비재 수출 성과와 시사점	2021.10
21-036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추진현황 및 시사점	2021.11
21-037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요 이슈 및 통합과정 점검	2021.11

□ KOTRA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1-001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국	2021.1
21-002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일본	2021.1
21-003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동남아	2021.1
21-004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서남아	2021.1
21-005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동	2021.1
21-006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유럽	2021.1
21-007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CIS	2021.1
21-008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2021.1
21-009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남미	2021.1
21-010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아프리카	2021.1
21-011 ~ 21-090	2021 국별 진출전략 (80개국)	2021.1
21-091	한-영국 FTA 실무활용 가이드	2021.1
21-092	2020년 외국인투자주간(IKW 2020) 결과보고서	2021.1
21-093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온오프라인 가이드북	2021.1
21-094	외국인투자가이드 2021	2021.1
21-095	外國人投資ガイド 2021	2021.1
21-096	外商投資指南 2021	2021.1
21-097	KOTRA와 함께하는 수출기업화 성공스토리 2020	2021.1
21-098	제15회 외국인투자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결과보고서	2021.1
21-099	Business in Korea 2021	2021.1
21-100	외국투자가를 위한 조세가이드	2021.1
21-101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가이드	2021.1
21-102	한국생활가이드 2021	2021.1
21-103	2019/20년 KSP 정책자문보고서 모잠비크 : 모잠비크 운전면허교육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컨설팅	2021.2

21-104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Mozambique : Modernization to Improve the Driving License and Driving Practice System in Mozambique	2021.2
21-105	Pesquisa de Política e Consultoria para a Modernização do Sistema de Treinamento para Carta de Condução em Moçambique	2021.2
21-106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Final Report Brazil : Policy Consultation for 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Improvement in Brazil	2021.2
21-107	2019/20 Relatório Final da Consulta da Política de KSP : Consulta de Política para Otimização do Sistema de Automação da Propriedade Industrial no Brasil	2021.2
21-108	2019/20 Ecuador KSP Final Report : Policy Consultation for Strengthening Export Capability and Promoting Exports to Asia, Ecuador	2021.2
21-109	Programa de Transferencia de Conocimientos (KSP) Ecuador 2019/20 Informe Final : Recomendación de Política para Fortalecer la Capacidad de Exportación y Promover la Exportación a Asia, Ecuador	2021.2
21-110	2019/20년 KSP-ADB 공동컨설팅 인도 : 인도 항만 운영 개선을 위한 인력기술 강화 방안 컨설팅	2021.2
21-111	2019/20 KSP-ADB Joint Consultation Report India : Skill Enhancement to Improve Port Operations in India	2021.2
21-112	페루 파나맥스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 제조 관련시설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한 분석 및 전략수립	2021.2
21-113	Modernización y Expansión de las Capacidades de Construcción y Reparación Naval de Buques Panamax y Post-Panamax en Peru	2021.2
21-114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Shipbuilding and Repair Capacity of Panamax and Post-Panamax Vessels in Peru	2021.2
21-115	2020년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일일동향보고	2021.2
21-116	KOTRA 도쿄 IP-DESK 2020년 정보레터 모음집	2021.2
21-117	포커스 on 코리아	2021.2
21-118	2021 KOTRA 서비스 가이드북	2021.2
21-119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2021.2
21-120	외국투자가를 위한 입지가이드	2021.2
21-121	외국투자가를 위한 노사가이드	2021.2
21-122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2021.2
21-123	2020년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이슈리포트	2021.2
21-124	K-방역, 위기를 뚫고 희망을 열다	2021.3
21-125	싱가포르 진출 기업들을 위한 싱가포르 노무 가이드	2021.3
21-126	KOTRA, 해외 진출의 희망이 되다	2021.3
21-127	해외 프로젝트 시장 전망 및 수주 활성화 전략 보고서	2021.3

21-128	Taxation in Korea 2021	2021.3
21-129	Customs Clearance in Korea 2021	2021.3
21-130	Industrial Sites in Korea 2021	2021.3
21-131	Labor Laws in Korea 2021	2021.3
21-132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2021	2021.3
21-133	한국 스마트팜 디렉토리북 2021 = Directory of Korean Smart-Farm Solutions	2021.3
21-134	2020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전략 보고서	2021.4
21-135	Living in Korea 2021	2021.3
21-136	韓國生活ガイド 2021	2021.3
21-137	韓國生活指南 2021	2021.3
21-138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1	2021.3
21-139	2020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2021.4
21-140	2020 수출애로 우수상담 사례집	2021.4
21-141	2020 해외 전문인력 정보조사 보고서	2021.4
21-142	2020 IP-DESK 백서	2021.4
21-143	2020년 한-베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 베트남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2021.4
21-144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 Advancing Energy Safety Management	2021.4
21-145	2020년 한-베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 베트남 농산품 국내시장 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 사업	2021.4
21-146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 Promoting Viet Nam's exports of key agro products to Korea	2021.4
21-147	2021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2021.5
21-148	전기전자산업 해외 시장동향 및 시사점 : 반도체 장비, 모바일 디스플레이, 3D 프린팅, IoT 센서 산업 중심	2021.5
21-149	FTA 초보지만 괜찮아!	2021.6
21-150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2021.6
21-151	2020 K-V Economic Cooperation Work Program :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Used Machinery and Equipment Import Regulations of Viet Nam for K-V Investment Promotion	2021.6
21-152	CHƯƠNG TRÌNH HỢP TÁC KINH TẾ FTA Hàn Quốc-Việt Nam năm 2020 : Phổ biến các quy định của Việt Nam về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nhằm thúc đẩy hoạt động xúc tiến đầu tư Hàn Quốc-Việt Nam	2021.6
21-153	IP-DESK 주요 상담사례 (FAQ)	2021.6
21-154	2021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2021.6
21-155	2021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참고교재	2021.6

21-156	한 권에 담아낸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KOTRA가 전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트렌드	2021.6
21-157	한-중 FTA 실무활용 가이드	2021.6
21-158	한-베 FTA 실무활용 가이드	2021.6
21-159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	2021.7
21-16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2021.7
21-161	2020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 연차보고서	2021.7
21-162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20	2021.7
21-163	2020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21.7
21-164	2021 베트남 비즈니스 팁	2021.7
21-165	나는 외투 기업에서 일한다: Q&A로 살펴본 외투기업의 A to Z	2021.7
21-166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2021.8
21-167	미국 지식재산권 관리 알짜팁 가이드	2021.8
21-168	2021 베트남 파워엘리트	2021.8
21-169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21.8
21-170	해외진출 종합 핸드북 : 한손에 쏙! 한눈에 쏙!	2021.8
21-171	해외 탄소시장 진출 가이드	2021.8
21-172	한-캄보디아 FTA 실무활용가이드	2021.8
21-173	베트남 내 CSR활동 동향 및 시사점	2021.8
21-174	최근 베트남 진출 섬유류기업 현황과 대응	2021.9
21-175	Focus on Korea	2021.9
21-176	KOTRA 2020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21.9
21-177	2021 글로벌 IP 이슈페이퍼	2021.10
21-178	SEOUL FOOD 2021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21.10
21-179	제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Official Directory	2021.10
21-180	사례로 보는 지재권 침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징벌적 배상책임	2021.10
21-181	중국 디자인 특허의 출원 및 보호	2021.10
21-182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지재권 환경 및 동향 변화	2021.10
21-183	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2021.10
21-184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1.10
21-185	신남방 신북방 비즈니스 상담사례집	2021.11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1-001	2021 글로벌 신통상포럼 자료집	2021.5
21-002	Global Project Plaza 2021 : 글로벌 프로젝트 포럼 / 중동 PPP 프로젝트 포럼	2021.6
21-003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39차 수요포럼: 변화하는 해외건설의 새로운 노멀	2021.6
21-004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인니 진출전략 웨비나	2021.6
21-005	해외 탄소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 방안 온라인 설명회 발표자료집	2021.8
21-006	美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웨비나	2021.9
21-007	USMCA 1주년 동향 분석 웨비나	2021.10

작 성 자

중동아프리카CIS팀 박지원

Global Market Report 21-037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요 이슈 및 통합과정 점검

발 행 인 | 유정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1년 11월 24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중동아프리카CIS팀 박지원
(02-3460-7653)
I S B N | 979-11-402-0013-9(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